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7831

2009年 2月
碩士學位論文

創造都市를 위한 日本 센다이의 戰略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李 榮 文

創造都市를 위한 日本 센다이의 戰略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trategy for Creative City in Sendai of Japan

2008年 11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李 榮 文

創造都市를 위한 日本 센다이의 戰略에 관한 研究

指導敎授 林 晩 澤

이 論文을 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李 榮 文

李榮文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主　　審 朝鮮大學校 敎授 金 秀 璘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朴 剛 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林 晩 澤 印

2008年 11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目 次

ABSTRACT

Ⅰ. 序 論 ····· 1
1.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1.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Ⅱ. 創造都市의 槪念과 센다이를 둘러싼 環境 ····· 4
2.1 創造都市의 槪念 ····· 4
2.2 創造都市의 系譜 ····· 5
2.3 유네스코의「The Creative Cities Network」 ····· 8
2.4 센다이의 槪要 ····· 10
2.5 센다이의 强點 ····· 11
2.5.1「敎育都市」로서의 知的資源의 集積 ····· 12
2.5.2 藝術・文化 등 創造的 活動의 擴大 ····· 12
2.5.3 프로 스포츠 등 都市 娛樂의 存在 ····· 14
2.5.4 오랜 歷史와 傳統에 육성된 獨自的 文化 ····· 14
2.5.5「숲의 都市」의 傳統, 풍부한 自然과 都市機能이 조화한 特色 있는 都市空間 ····· 15
2.5.6 商業機能, 都市서비스産業의 集積과 큰 經濟圈의 存在 ····· 16
2.5.7 東北의 中樞都市・交流據點으로서의 位置 ····· 17
2.5.8「居住하기 편리한 都市」로서의 브랜드 이미지의 定着 ····· 18
2.5.9 市民, NPO 등에 의한 여러 領域에서의 都市建設의 實踐 ····· 19

Ⅲ. 都市建設의 理念과 方向 ····· 21

3.1 都市空間形成의 틀 ····· 21
3.1.1 都市空間形成의 基本方向 ····· 21
3.1.2 土地利用의 基本方針 ····· 21
3.1.3 都市機能의 提携 ····· 22
3.1.4 都市空間形成의 推進 ····· 23
3.2 創造와 交流를 위한 都市建設 ····· 23
3.3 都市建設의 理念과 4가지의 基本方向 ····· 25
3.3.1 基本方向 1：「創造」都市 ····· 26
3.3.2 基本方向 2：「交流」都市 ····· 32
3.3.3 基本方向 3：「創造」와「交流」의 場이 되는 都市基盤 造成 ····· 37
3.3.4 基本方向 4：「숲의 都市」의 再構築 ····· 42

Ⅳ. 都市비전 實現을 위한 틀 ····· 47
4.1 都市政策의 綜合的 展開 ····· 47
4.2 都市經營 觀點에서의 틀 ····· 49
4.3 다양한 主體의 提携에 의한 都市建設 ····· 50
4.4 人材育成 ····· 51
4.5 都市비전에 바탕한 틀의 進行管理 ····· 52
4.6 主體的・創造的 都市經營의 推進 ····· 52
4.7 市民과 行政의 協力에 의한 都市建設의 推進 ····· 52
4.8 效率的인 行財政運營의 推進 ····· 53

Ⅴ. 結 論 ····· 55

參考文獻 ····· 56

表 目 次

표 1. 「The Creative Cities Network」 인정도시 ····· 9

그 림 目 次

그림 1. 센다이의 지도 ····· 11
그림 2. 東北大學片平캠퍼스 ····· 13
그림 3. 東北學院大學土樋캠퍼스 ····· 13
그림 4. 仙台클래식패시티벌 ····· 13
그림 5. 연극스튜디오10-BOX ····· 13
그림 6. 프로축구 ····· 14
그림 7. 東照宮隨身門 ····· 15
그림 8. 大崎八幡宮 ····· 15
그림 9. 仙台七夕축제 ····· 15
그림 10. 定禪寺도로 ····· 15
그림 11. 居久根 ····· 15
그림 12. 廣瀨川 ····· 15
그림 13. 仙台도매상단지 ····· 16
그림 14. 중심상가 ····· 16
그림 15. 仙台空港의 항공네트워크 ····· 17
그림 16. 仙台국제무역항의 국제콘테이너 정기항로 ····· 17
그림 17. 仙台의 Bic Project 地下鐵東西線 건설 ····· 18
그림 18. 東北6縣의 고속버스네트워크 ····· 18
그림 19. 살고 싶은 도시 순위 ····· 19

그림 20. 비즈니스맨이 살기 좋은 도시 ····· 19
그림 21. SENDAI 빛의 야외극 ····· 19
그림 22. 경관지역건설의 실천 ····· 19
그림 23. 仙台市에서의 주요한 틀과 仙台도시권에서의 관련프로젝트 ··· 20
그림 24. 도심지역에서의 주요한 틀 ····· 20
그림 25. 도시의 비전 책정 ····· 24
그림 26. 仙台 도시 비전 ····· 25
그림 27. 교육도시 仙台 콘소시움 설립총회 ····· 27
그림 28. 東北大學 靑葉山 캠퍼스 계획안 ····· 28
그림 29. 仙台 핀란드 건강복지센터 ····· 29
그림 30. 仙台市 정보・산업플라자 ····· 30
그림 31. 仙台연극스튜디오 10-BOX ····· 31
그림 32. 仙台디자인위크의 모양 ····· 31
그림 33. 定禪寺도로 재즈 패스티벌 ····· 33
그림 34. 仙台국제센터 ····· 34
그림 35. 광역관광제휴의 틀 예 ····· 34
그림 36. 산업・건강복지분야에서 핀란드와의 교류 ····· 35
그림 37. 仙台공항 ····· 36
그림 38. 仙台空港의 도달권 ····· 36
그림 39. 괘도계 교통축을 기축으로 한 집약형시가지 ····· 39
그림 40. 장래 공공교통네트워크 ····· 40
그림 41. 공공교통시설의 배리어프리화 ····· 41

그림 42. 루브르 仙台 ····· 41
그림 43. 仙台공항 접근철도 ····· 41
그림 44. 仙台국제무역항 ····· 41
그림 45. 자동차전용도로 등 계획도 ····· 42
그림 46. 도로공간 재구성에 의한 녹지의 창출 이미지 ····· 44
그림 47. 도심지역에서 전선지중화사업의 틀 ····· 44
그림 48. 지역의 방범조직 ····· 45
그림 49.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건물 ····· 46
그림 50. 시책전개의 이미지 (4가지의 기본 방향 상호의 관련성) ····· 48
그림 51. 도시정책의 종합적 전개의 이미지 ····· 49
그림 52. 다양한 주무처의 제휴에 의한 도시건설의 이미지 ····· 51
그림 53. 도시비전에 바탕한 틀의 진행관리 이미지 ····· 54

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y for Creative City in Sendai of Japan

By : Lee, Young-Moon
Advisor : Prof. Lim Mann-Taek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s environments surrounding cities are changing, such as population, physical structures and intensified competition with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it is important for Sendai, Japan to make use of its existing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to enhance its advantages.

The city vision of Sendai is to incorporate relevant policies and to create a beautiful and active city according to the four basic directions: to establish a city of creation, a city of exchange, and a city of using both creation and exchange as key words, and a city of forests.

Thus, Sendai aims to create a city which pursues creative options while using its creative resources such as intelligent resources as a city of education and artistic and cultual activities.

Sendai also wants to work closely with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to ensure there is a base of permanent energy through international and national exchanges.

In multi-angled perspectives of 「Sendai, a hub city」,「Sendai as a core of regional networks」,「Sendai as a central residential zone」, it is preparing for the city base on which creation and exchange are created. Therefore, strategic vision for the framework to be developed for definite realization of city image targeted by Sendai 21 Plan should be practically considered.

Ⅰ. 序 論

1.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일본은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세계에 예를 볼 수 없는 속도로 소자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시민의 삶을 지지하는 경제의 축소나 도시의 활력상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국경을 넘은 도시간 경쟁도 치열함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 지방도시의 재정적 제약은 한층 엄격하게 되는 것이 상정되고, 지방분권이 진행되는 중에 도시는 꾸준히 재정개혁을 추진함과 아울러 시대가 요청하는 과제에 도전하여 스스로 창의와 노력에 의해 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민복지를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도시가 이러한 과제에 도전하여 주도적·창조적으로 도시경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본의 도시와 지역은 전세기말부터 계속되는 산업공동화와 구조전환의 큰 물결에 농락되고, 잇달은 기업도산과 대량실업 중에서 곤경에 처해 있다.

한편 2002년 1월부터 통일통화 유로의 본격적인 유통이라는 일대사회실험이 개시되고, 국경을 넘은 경제사회의 통합이 추진되는 EU를 보면,「국민국가에서 도시」로 라는 사회의 큰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는「도시의 세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 때 런던이나 파리 등 뉴욕이나 도쿄와 아울러「세계도시」라고 하는 거대도시만이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30~50만명 정도의 인간적 규모의 도시이면서 독자의 예술문화를 육성하고, 혁신적인 경제기반을 가진「창조도시」의 동향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생활하는 삶의「장」이다. 복지, 교육, 환경, 의료, 도시기반정비, 문화, 산업·고용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적 지자체로서 항상 시민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시민이 안전·안심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장」이어야 한다.

한편 도시는 다양한 인재가 모여들고, 교류하는「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교환되고, 새로운 가치가 생산되어 외부에 발신된다.

창조도시란 글로벌화의 진전이나 산업구조의 전환 등 시대환경에서 최근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도시의 건설에 관한 모델로서 도시주민·기업 등의 창조적 활동, 특히 예술·문화나 산업에서 창조성이 넘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러한 창조적 활동에 의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시민생활의 질이 풍부함을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예술문화진흥기본법이 2001년말부터 시행되어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개가 기대되고 있으며, 버블경제붕괴 후 장기의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창조도시」나「문화에 의한 도시재생」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창조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센다이(仙台)시에서의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한국에서도 창조도시를 지향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1.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센다이시에서는 1997년 3월에 기본구상을 책정하였다. 기본구상은 고령사회나 인구감소시대의 도래, 환경문제, 지구적 교류의 진전, 가치관이나 지역사회의 변화 등을 극복하고, 장래에 시민이 희망을 안고 센다이를 창조하기 위한 지침이다.

센다이시에서는 기본구상에 정한 목표와 이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종합적 정책체계「(센다이21 플랜」(센다이시 기본계획 : 계획기간 1998년도～2010년도))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한「실시계획」(3개년 정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저성장이나 인구감소와 소자녀 고령화의 진전 등 일본사회경제의 성숙화가 상정을 넘어 진행되는 한편 아시아 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이나 국경을 넘은 도시간 경쟁의 격화, 지방분권의 진전, 엄격해지는 도시의 재정적 제약 등「센다이21 플랜」책정시에 비하여 도시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도시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큰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센다이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점에서 전략적인 비전을 구상하고, 도시의 활력과 개성, 매력의 유지·향상과 그 기반조성을 행하는 데 필요하다.

「도시비전」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산업활성화」와「도시공간의 정비・재편」이라는 영역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센다이21플랜이 목표로 하는 도시이미지의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속할 수 있는 틀, 강화할 수 있는 틀을 기둥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비전에서는 괘도형 교통기관을 기축으로 한 집약형 시가지 형성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집약형 도시란 다만 효율화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가용차에 의존하지 않는 범위에 도시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에 의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류를 깊게 하며,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 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외로 확산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이다. 새로운 도시비전은 이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시민주도의 창조적 도시건설을 기조로 하여 21세기 중엽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들이 조화・융합한「21세기도시 센다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아름다움과 건강으로 가득찬 시민의 도시 센다이 – 편안한 도시
- 지구환경시대를 선도하는 유구한 숲의 도시 센다이 – 풍부한 숲
- 지구적 교류시대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중추도시 센다이 – 활기찬 도시
-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의 교육도시 센다이 – 희망찬 사람

본 연구에서는 이「센다이시 도시비전」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創造都市의 槪念과 센다이를 둘러싼 環境

2.1 創造都市의 槪念

창조도시의 개념은 21세기의 도시모델로서, 또한 도시정책의 목표로서 세계에서 뜨거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창조도시가 주목을 모은 시대배경으로서 21세기의 지구사회가「국민국가에서 도시로」라는 사회의 큰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여「도시의 세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창조도시란 영국의 도시계획가 찰스 란드리(Charles Landry)가 1995년에 저술한 동명의 소책자 및 2000년에 발행한 저서「The Creative City :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에서 제창한 도시재생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다.

동 저서에서는,「왜 몇 개의 도시는 성공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산업의 쇠퇴나 인구감소 등의 심각한 도시적 과제를 극복하고, 재생할 수 있었던 도시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고, 거기에서 귀납법적으로 "Creative City"(창조도시)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문화에 대표되는 "창조성"이 탈공업화시대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시민사회의 시스템을 변혁하여 세계화 중에서 아이덴티티를 함양하는 것을 통하여 도시의 활력 및 재생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일본의 佐々木雅幸는 그의 저서「창조도시에의 도전」(2001년)에서 " 창조도시란 시민의 창조활동의 자유로운 발휘를 바탕으로 문화와 산업에서 창조성이 풍부하며 동시에 탈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을 갖추고, 글로벌한 환경문제나 로칼한 지역사회의 과제에 대하여 창조적 문제해결을 행할 수 있는『창조의 장』이 풍부한 도시이다."고 주장하였다.

창조도시에 관련한 또 하나의 흐름으로서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리차드 프로리다(Richard L. Florida)가「Creative Class」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제창하고, 그 실증적 연구를 하고 있다.

이「Creative Class」란 새로운 가치관, 작업양식, 생활양식을 가진 창조성의 공급자로 검토되고, 구체적인 직업으로서는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창조자, 관리자, 전문가, 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프로리다는 최근 저서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2005년)에서 세계의 주요 45개국을 대상으로「창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국제창조성지표」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 「국제창조성지표」란「국제허용성지표」(Tolerance),「국제테크놀로지지표」(Technology),「국제인

재지표」(Talented)라는 3가지의 “T”로 구성되어 있다.[1)]

이와 같이 창조적인 예술활동이 활발하여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많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창조적인 공공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수립할 수 있어 그 레벨이 높은 도시를 창조도시라고 할 수 있다. 창조적인 정책을 도입하거나 창조적인 시민활동이 활발한 도시도 넓은 의미에서는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창조도시에서는 시민의 활발한 창조활동에 의해 첨단적인 예술과 풍부한 생활문화가 길러지고 혁신적인 산업을 진흥하는 창조적인 장소가 풍부하며, 이러한 도시환경에서는 지역의 여러 문제를 민간이 지속적으로 해결하여 도시가 발전하는 토대가 된다.

현재 한국의 도시는 매우 경직화하여 시민활동 자체가 어느 의미에서는 오래 지속된 경제활동에 정체되어 있고, 목전의 도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창조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정책론으로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른바 학문적으로 명쾌한 지표를 제외하고 창조도시를 정의하는 문제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도시정책에서 창조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창조적인 시민활동을 전개하는 이 양쪽의 문제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충분히 논의하여 온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2.2 創造都市의 系譜

창조도시 개념의 형성은 세계도시 개념의 양의성이 창출한 여러 가지대체 개념(alternative concept)의 집약과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소규모 도시가 세계도시라는 상징에서 자기표현하더라도 뉴욕, 런던, 동경 등과 같은 영향은 가지지 못한다. 이들 세계의 도시 계층(hierarchy)의 정점에 서는 세계도시 정도의 도시규모, 경제력, 중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규모의 도시 등 중에서 「살기 편리한 도시」라는 것은 미국의 중소도시와 도시연구자, 랜드마크나리社와 같은 출판사 등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피치파크, 보스톤, 포틀랜드 등 인구는 50만, 100만이 못되지만, 도시로서의 역사나 전통과 새로운 도시적 어메니티가 혼재하고, 작지만 인구나 사업소의 집적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지가나 주택임대료는 저렴하고, 비교적 도

1) 평가대상 45개국 중에서 제1위는 스웨덴, 제2위는 일본, 제3위는 핀란드, 제4위는 미국이다.

시사회가 안정하여 범죄의 발생건수도 많지 않으므로 안심감을 가지고 거주한다. 이에 비하여 그곳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시인가에서 취업기회나 비즈니스 기회도 있다. 물이나 녹지 등의 자연환경이나 경관에 혜택받은 훌륭한 대학이나 미술관, 극장이나 운동시설도 있어 도시적인 흥분시킴도 갖추고 잇다. 이러한 지표를 종합하면 이와 같은 도시에 가장 매력적이며 살기 편리한 도시는 아닌가, 라는 점에서「미국에서 가장 살기 편리한 도시」를 선택하는 경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살기 편리함」(liveability) 개념은 경제적인 풍요나 경쟁력보다「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척도로 한 고려이다. 세계도시의 주역이었던 gentry나 yuppie는 모두 세계도시에만 출현한 것은 아니다. 대량생산형 공업사회의 지식사회・탈공업사회에의 전환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 전체 공통의 변화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규모도시에서도 서비스 경제화나 IT화가 일어난다든지, 컴퓨터, 소프트 기술자나 디자이너, 카피라이터(copywriter), 변호사, 회계사, 연구자 등의 직종 사람들의 비율은 높았다. 중소도시의 gentry 중에는 뉴욕, 로스안젤스에의 이동 희망도 강해졌지만, 동시에 중규모도시에도 그런대로 지식사회, gentry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노동자에 대신하여 새로운 도시의 주인공이 된 그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도시가 높은 삶의 질을 보호육성하는 도시일 것을 요구하고, 함부로 도시개발을 억제하여 환경의 보전이나 도시 커뮤니티의 안정・통합을 목표로「성장관리」(growth management)의 운동을 일으켰다. 1980년대 후반의 샌프란시스코에서「적정한 성장을 요구하는 샌프란시스코 시민의회」(San Franciscans for Reasonable Growth) 등의 운동은 동 시에서 연간의 오피스 스페이스 개발에 상한을 설정하여 개발업자에게 오피스나 고급아파트의 건설에 일정 비율로 보통의 근로자가 구입・임대할 수 있는 주택 스페이스(affordable housing)의 공급을 의무화한 조례제정의 직접 청구를 하였다. 이것은 세계도시의 gentry들과는 약간 다른 도시건설의 접근이지만, 그 견인역에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변호사나 건축가, 예술가이었다.[2] 결국 여기서는 자유(liberal) 사회파 gentry층과 노동자나 환경운동과의 연합이 성립한 것이고, 이러한 운동은「새로운 도시 포퓨리즘」(New urban populism)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3]

---

2) 大阪自治体問題研究所編, 世界都市とリバブル都市, 自治体研究社, 1991.
3) 佐々木雅幸＋總合研究開發機構, 創造都市への展望, 學藝出版社, pp.20～23, 2007.

이러한 운동에 의해 추구된 중규모의 거주하기 편리한 도시도 지식·경제의 근거이고, 일에서 창조력과 도시건설에서 창조성이 공존한 도시이었다. 이들 도시는 제일급의 국제금융센터가 없더라도 IT산업이나 법인서비스 기업이 입지하여 도시의 쇠퇴를 줄이면서 극복한 것이다.

미국에서 거주하기 편리한 도시에는 유럽의 압축도시와의 공통점이 많다. 유럽대륙에는 대도시가 적고, 그린벨트로 도시 스프롤을 억제한 중규모도시가 많다. 대부분의 도시가 중세 이후의 역사를 가지고, 올드타운을 중심으로 한 규모의 도시이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오페라하우스나 대성당, 미술관이나 시청사, 광장이나 돌을 깐 바닥의 가로, 마을의 얼굴이 된 하천이나 교량, 공원, 시내를 둘러싼 노면전차(tram) 등이 각각 특유의 개성적이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도 그 알맹이는 대부분 변화하고, 산업혁명의 요람의 장이었던 공장이나 창고, 도크는 외관을 남긴 채로 갤러리나 레스토랑, 쇼핑센터몰로 보습을 바꾸고, 노동자에 대신하여 도시전문직층이 주역이 되어 있다. 직인의 전통은 유지되고 있지만, 도시의 산업구조는 역시 지식경제화되어 있다. 올드타운을 탄생케 하고, 개성을 자원으로 하는 도시를 연출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도 도시계획가, 건축가, 예술가나 문화인들이고, 직인들이다. 그들이 가진 창조성이 도시를 갱신하고, 새로운 경제로 낡은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럽 제 도시의「창조도시」로서의 특징은 찰스 란드리 등의「歐洲創造都市研究グループ」등에 의해 개념화되었지만, 거기에서는 문화활동과 그 사회적 기반이 창출하는 혁신의 작용·능력을 도입한 도시가 이미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4] 환언하면 거기에서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財를 활용한 수입대체생산에 의해 지역 내의 산업연관이나 기술·조직혁신의 메커니즘이 창출되고, 도시의 문화와 경제가 일체가 된 가치창조작용이 구성된 것이다. Bologna, Barcelona, Cologne, Bremen, Freiburg, Strasbourg, Birmingham 등이 이러한 유럽형 창조도시의 예가 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유럽의 창조도시가「거주하기 편기한 도시」논이나「지속가능한 도시」논의 단순한 연장은 아니었던 것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창조도시논자인 F. Biancini나 C. Landry는 자연환경이나 안전, 물가 등「거주하기 편리한 도시」논이 중

4) 佐々木雅幸, 創造都市の經濟學, 勁草書房, 1997.

요시하는 지표는 도시고유의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질은 성장가능성(viability)이나 활력(vitality)에 무게를 두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도시에 비하여 유럽의 도시는 도시로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시골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 스프롤이나 범죄, 물가 등 미국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따라서 도시고유의「삶」의 질에 주목한 접근이 중요시되고, 규모는 작더라도 도시적인 지역의 특징으로서「창조성」이 강조되는 것이다.[5)]

어쨌든 세계도시라는 개념에서는 도시 정체성을 표현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도시를 배경으로 지식사회, 탈공업사회 중에서의 이념형적인 도시이미지로서 구성된 것이 창조도시라는 개념이라고 본다.

2.3 유네스코의「*The Creative Cities Network*」

창조도시의 개념은 국제기관에서도 채용되고 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The Creative Cities Network」라는 제도를 2004년에 개시하였다.

이「The Creative Cities Network」란 예술문화에 관한 세계수준에서의 경험지식이나 전문기술을 가진 도시의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예술문화 측면에서 특색있는 도시에 대하여 유네스코가「Creative City」라는 칭호를 수여하는 것에 따라 도시에서 문화관련산업을 진흥하고, 국내시장 및 세계시장에서의 문화생산물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여 문화관련의 고용을 촉진하고, 세계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Literature(문학), ② Cinema(영화), ③ Music(음악), ④ Craft and Folk Art(민속예술), ⑤ Design(디자인), ⑥ Media Arts(미디어 예술), ⑦ Gastronomy(음식문화), 라는 7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07년 12월 현재, 지금까지 인정된 것은 표 1에서 보듯이 5분야 9도시로 되어 있다(1도시 1분야만 신청・인정 가능).

---

5) Biancini, F.R. and C. Landry, The Creative City, Comedia, 1994.

표 1.「The Creative Cities Network」인정도시

분야명	도시명	국 명
문학도시	Edimbourg	영국
영화도시	(없음)	
음악도시	Bologne	이탈리아
	Séville	스페인
민속예술도시	Assouan	이집트
	Santa Fé	미국
디자인도시	Berlin	독일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Montréal	캐나다
미디어 예술도시	(없음)	
음식문화도시	Popayan	컬럼비아

출처：太下義之, 創造都市バルセロナの文化政策, 季刊 政策・經營研究, Vol.1, p.21, 2008.

당초에는 대상도시를「세계적으로는 그다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중견도시」라는 이미지로 구상을 검토한 것이지만, 실제 인정되어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도시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The Creative Cities Network」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해도시의 문화산업, 공공부문, 시민단체 등의 민간부문의 모두에 교섭을 가진 신청책임자(개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The Creative Cities Network」에의 가맹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당해국의 당해분야에 관한 전문가 3~4명(당해국 및 국외의 쌍방 전문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유네스코 내에 설치하고, 신청서의 내용이 정확한가, 도시로서의 전향적인 자세가 인정되는가, 장래 발전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심사된다. 다만 엄격한 심사기준은 없는 것 같다.

「The Creative Cities Network」로서 인정된 도시는 세계에 대하여 도시의 문화유산을 자랑할 수 있음과 아울러 전문가 등의 교류를 통하여 세계각지의 문화단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다. 또한 인정된 후에는 국제회의나 워크숍 등의 프로젝트 추진이 요구되는 외에 2년에 한번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는 2007년 12월 현재「The Creative Cities Network」로서 인정된 도시는 없지만, 상해(중국)이 신청 중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오사카(大阪)가「미디어 예술도시」로서 나고야(名古屋)시 및 고베(神戸)시는「디자인도시」로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2.4 센다이의 槪要

일본 미야기현[宮城縣]의 현청소재지이고, 면적은 783.54 (㎢)이고, 인구는 1,025,223명 (2008)이며, 인구밀도는 1,308(명/㎢) (2008)이다.

17세기 초 이래 대영주의 성읍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도호쿠[東北] 지방 최대의 도시가 되었다. 시가지는 히로세강[廣瀨川] 좌안의 넓은 단구(段丘)에 펼쳐진다. 동부의 충적평야는 비옥한 논농사 지대이고, 남부의 나토리강[名取川] 자연제방에서는 채소재배가 활발하다. 동부해안에는 5만 t급 선박의 입항이 가능한 센다이항이 있다. 항구 주변에 새로운 공업지구가 조성되고, 그 밖에 남부와 북동부에도 공업지구가 분산하여 정유・화력발전・특수강・토관(土管)제조 등의 공업이 활발하다. 또한 칠기・향토완구・직물 등 전통적인 특산물의 종류가 많다.

도호쿠 지방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어, 중앙관서와 회사・은행의 출장소・지점 등이 고루 입지하였으며, 도호쿠대학을 비롯한 10여 개의 대학 및 박물관・천문대・동물원・야생식물원・종합경기장・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많다. 센다이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전재(戰災)로 많은 사적・문화재를 잃었으나 시가지는 근대적으로 재건된 전형적인 소비도시이다.

「숲의 도시」라고 불리는 자연환경,「교육도시」라고 불리는 고도한 연구개발기능, 그리고 역강한 시민활동을 가지고, 장래에 양호하며 아름다운 환경이나 활력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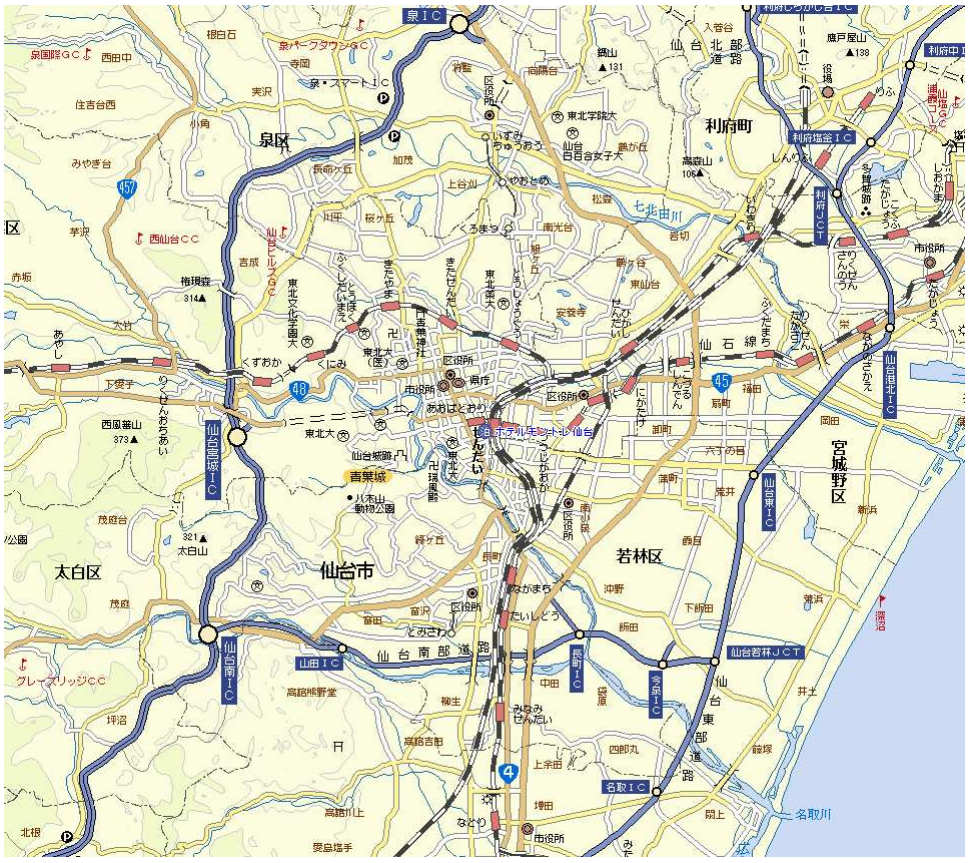


그림 1. 센다이의 지도

2.5 센다이의 强點

도시개발경쟁의 격화나 재정제약이 강한데 센다이의 개성을 활용하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육성된 센다이시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5.1「教育都市」로서의 知的資源의 集積

센다이시는 동북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 고등교육기관이 입지하여「교육도시」로서의 지적자원이나 인재가 집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자원의 집적을 센다이시의 중요한 도시기능으로 하여 대학에 의한 지적창조활동을 산업의 활성화나 지역과제의 해결, 인재육성 등 많은 장면에서 활용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 캠퍼스의 대규모 이전이나 캠퍼스와 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동서선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는 대학의 지적창조기능을 센다이시의 도시건설 중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5.2 藝術・文化 등 創造的 活動의 擴大

센다이국제음악콩쿠르[6]나 센다이필하모니관현악단, 센다이연극스튜디오10-BOX[7]의 활동 등 센다이시에서는 국내외에서도 평가가 높은 예술・문화의 창조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센다이클래식페스티벌[8]이나 定禪寺스트리트재즈페스티벌 등 많은 시민이 예술・문화에 접할 수 있고,「숲의 도시」[9]의 새로운 매력이나 거리의 활기를 창출하는

---

6) 센다이시가 에도(江戸)에 幕府가 설치되고, 거기에 도시가 조성된 400년을 기념하여 2001년에 창설하여 3년마다 행하는 콩쿠르. 협주곡(concerto)을 과제곡의 중심으로 시행하는 특색을 가지고, 바이올린부문과 피아노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2005년 5월에는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에도 가입하여 세계적인 음악콩쿠르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다.

7) 「연극의 도시 센다이」를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연극진흥사업의 거점으로서 2002년에 若林區 御町지구에 설치된 연극연습시설. 이용자의 자주적 관리에 의한 심야이용의 실현, 지역연극인과 제휴한 운영이 도입되어 있고,「연극의 도시 센다이」사업의 거점 역할도 담당하는 등 연극사업의 발신・교류의 중심이 되어 있다.

8) 「음악의 도시」를 목표로 하는 일환으로서 2006년 10월 7~9일에 개최.「센다이를 클래식음악의 테마파크로」라는 개념으로 누구라도 들었던 적이 있는 클래식의 명곡을 제공하는 페스티벌로서 개최한 것.

9) 仙台藩祖伊達政宗의 적극적인 식림장려책에 의하여 仙台城下町에 심어진「인공림」,「옥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東北大學片平캠퍼스

그림 3. 東北學院大學土樋캠퍼스

그림 4. 仙台클래식패시티벌

그림 5. 연극스튜디오10-BOX

이러한 활발한 예술·문화활동은 창조적인 인재를 불러들이고, 예술·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다고 하는 창조적 산업[10]을 진흥시킨다는 호순환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림」의 아름다움에서 마치 숲의 안에 거리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는「거리에 숲이」자란), 大正시대(1912-26) 무렵부터 일반적으로「숲의 도시」의 이름이 정착하였다고 한다.

10) 본 비즈니스에서는 개인이나 대학, 기업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지식, 기술, 예술성 등을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을 가리키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 등의 지적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나 예술·문화 등의 창조성을 활발하게 한 산업 등을 들 수 있다.

2.5.3 프로 스포츠 등 都市 娛樂의 存在

센다이시에는 축구나 야구, 농구 등 센다이를 본거지로 한 시민의 인기가 높은 프로 스포츠팀은 시민생활에 즐거움을 제공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 스포츠는 광역교류시대에 도시의 매력으로서도 중요하고, 귀중한 교류자원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프마라톤이나 축구, 배구 등의 국제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이러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유치·개최하여 효과적인 시티 세일즈[11]에 연결하는 틀도 중요하다.

그림 6. 프로축구

2.5.4 오랜 歷史와 傳統에 육성된 獨自的 文化

伊達 政宗公에 의한 開府 이래 400년 이상에 걸쳐 육성된 센다이 독자적 문화도 센다이시의 개성과 매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귀중한 것이다.

藩政시대[12]부터의 역사적 건조물이나 칠석축제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행사, 다양한 음식문화의 존재, 정서가 있는 역사적 도시명칭의 영향 등을 센다이의 개성과 매력에

---

11) 도시에 활력을 가져오고, 시민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의 여러 가지 매력을 외부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여러 가지 가치(사람, 돈, 물건, 정보 등)를 도시에 도입하는 활력.

12) 1600년 伊達政宗公이 仙台에 居城을 정하고, 伊達藩으로서 도시건설을 행한 것이 현재 仙台의 기초가 되어 있다.

역사적, 문화적인 깊이를 주는 도시의 자산으로 재인식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관점도 중요하다.

그림 7. 東照宮隨身門

그림 8. 大崎八幡宮

그림 9. 仙台七夕축제

2.5.5「숲의 都市」의 傳統, 풍부한 自然과 都市機能이 조화한 特色 있는 都市空間

센다이시는「숲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定禪寺 도로로 대표되는 녹지가 아름다운 가로수 도로나 도심의 청류·廣瀨川 , 서부에 퍼진 산들과 온천 등 풍부한 자연과 다양한 도시기능이 조화한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가지고 있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한 매력은 성숙사회[13]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내외의 여러 분야 인재의 교류와 정주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에 자랑하는 도시의 개성, 매력을 창조하는 틀이 요구된다.

그림 10. 定禪寺도로

그림 11. 居久根

그림 12. 廣瀨川

13) 인구나 경제의 양적 성장이 포화점에 달한 다음 단계의 사회. 마음의 풍부함이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중요시됨과 아울러 개성이나 다양성을 활용하여 창조성을 활력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이다.

2.5.6 商業機能, 都市서비스産業의 集積과 큰 經濟圈의 存在

센다이시에는 광역적인 상업기능으로서의 판매 도매·소매업이나 도시형 서비스산업[14]의 집적이 있고, 이들은 도시생활의 편리성이나 쇼핑의 기회, 오락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도시의 매력을 구성하는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업기능의 집적을 활발하게 하면서「숲의 도시」등의 도시이미지, 도시의 문화적 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해 내외로부터의 집객·교류의 구심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인접 현도 포함하여 수백만명 규모에 미치는 센다이의 큰 경제권은 소매업뿐만 아니라 성장산업으로서 기대되는 도시형 서비스산업이나 디자인, 콘텐츠[15] 등의 창조적 산업의 성장에 의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 仙台도매상단지

그림 14. 중심상가

14) 인구나 기업·사업소가 일정 정도 이상 집적하고 있는 도시에 입지하는 서비스산업. IT(정보통신관련), 각종 컨설팅, 디자인, 패션, 미디어, 문화, 교육, 오락, 건강 등 다양화한 소비자 욕구에 대응한 산업이나 기업·사업소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산업 등을 들 수 있다.

15) 콘텐츠란 영화, 음악, 연극, 문예,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도형, 색채, 음성, 영상 등의 정보 내용이다.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의 생산, 제작, 유통에 관련되는 산업을 가리킨다.

2.5.7 東北의 中樞都市・交流據點으로서의 位置

센다이시는 동북의 중추도시로서 공항, 항만, 철도, 도로망 등의 교통 인프라가 존재하고, 동북과 국내의 타지역, 세계를 연결하는 결절점, 교통의 요충으로서의 위치를 가지는 외에 고차의 광역적 도시기능[16](중추관리기능, 연구개발기능, 국제교류거점기능 등)의 집적이 있다.

이러한 중추성, 거점성을 높이는 것이 동북과 국내의 타지역, 해외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동북 전체의 발전, 나아가서는 센다이시의 발전에 연결되고 있다.

동북지방은 풍부한 자연이나 전통문화, 매력적인 관광지나 축제 등 독자적 교류자원을 가지고 있고, 센다이시가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핵이 되고, 동북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관점도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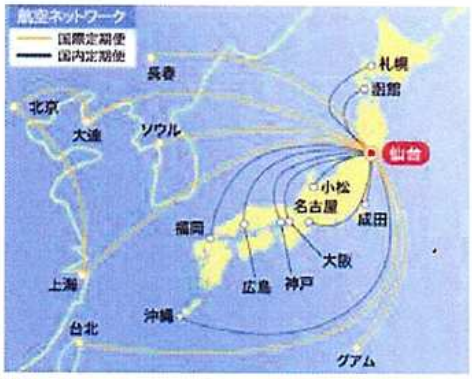


그림 15. 仙台空港의 항공네트워크

그림 16. 仙台국제무역항의 국제콘테이너 정기항로

16) 도시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고부가가치상업기능, 중추관리기능, 연구개발기능, 인재육성기능, 국제교류거점기능, 문화예술・오락기능 등 그 도시뿐만 아니라 보다 광역적인 지역에 대해서도 효과를 파급하는 기능. 센다이시는 동북의 중추도시로서 동북 전체의 자립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요구된다.

그림 17. 仙台의 Bic Project 地下鐵東西線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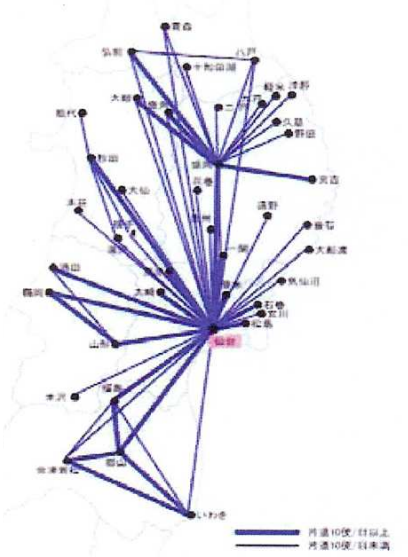


그림 18. 東北6縣의 고속버스네트워크

2.5.8「居住하기 편리한 都市」로서의 브랜드 이미지의 定着

센다이시는 많은 조사에서「거주하기 편리한 도시」,「거주하고 싶은 도시」의 상위에 위치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토대로 센다이시의 강점을 활용한 도시건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의해 국내외에서의 많은 인재를 불러모으는 도시로서 더욱 개성과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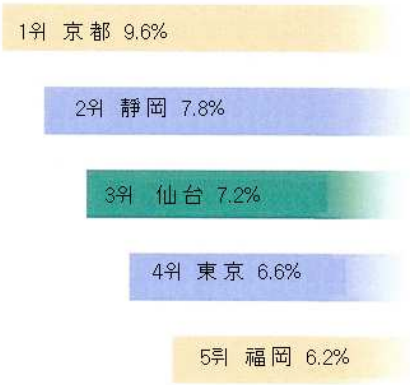


그림 19. 살고 싶은 도시 순위
(출처 : 時事通信社 조사(2004년)

그림 20. 비즈니스맨이 살기 좋은 도시
(출처 : 日經地域情報, 364호)

2.5.9 市民, *NPO* 등에 의한 여러 領域에서의 都市建設의 實踐

센다이시에서는 SENDAI빛의 야외극(pageant)이나 定禪寺 스트리트재즈페스티벌 등 시민참여에 의한 이벤트나 행사가 활발하고, 시민단체, NPO 등에 의한 여러 가지 도시건설 활동이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이나 NPO는 다양한 주체의 제휴에 의한 새로운 도시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센다이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림 21. SENDAI 빛의 야외극

그림 22. 경관지역건설의 실천
(八幡町 탐험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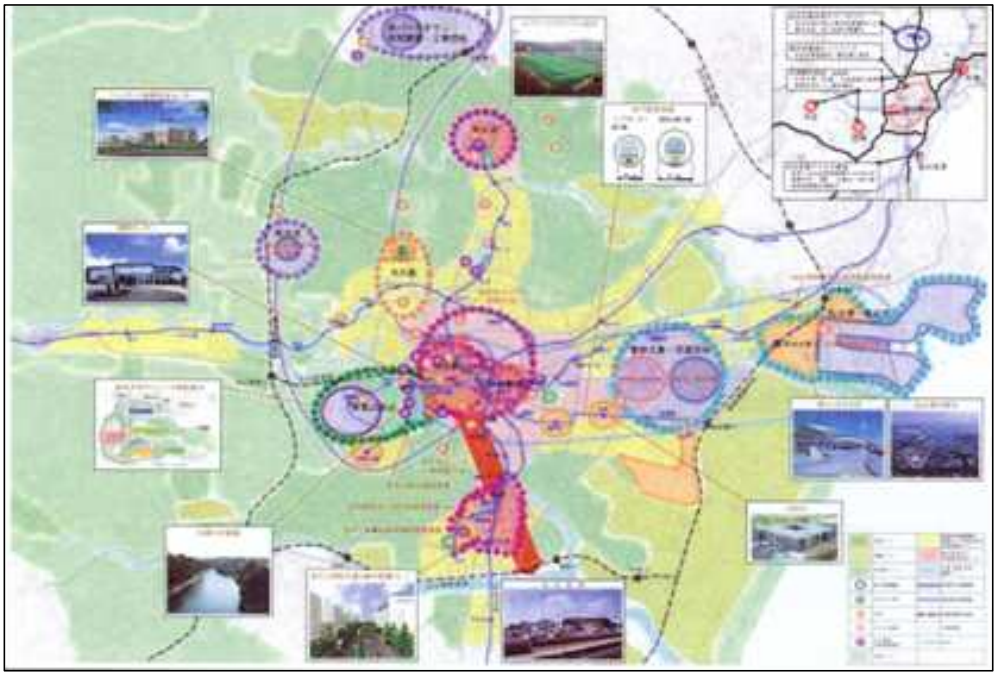


그림 23. 仙台市에서의 주요한 틀과 仙台도시권에서의 관련프로젝트

그림 24. 도심지역에서의 주요한 틀

Ⅲ. 都市建設의 理念과 方向

3.1 都市空間形成의 틀

3.1.1 都市空間形成의 基本方向

奧羽山系에서부터 이어진 풍부한 녹지, 시가지 내를 관통하는 하천, 자연 혜택이 풍부한 전원, 도심을 둘러싼 녹지나 공원 등 자연과 시가지가 조화한 숲의 도시 기본구조를 후세대에 넘겨줌과 아울러 보다 한층 녹지가 풍부한 매력적인 숲의 도시를 창조한다.

장기적인 인구동태도 고려한 도시자산의 유효활용, 교통기반정비와 도시기능의 집적에 의한 도시적인 매력이나 활력을 중요시하고, 자동차교통의존에 의한 외연적 확대형의 시가지 형성에서 괘도계 교통기관을 기축으로 한 통합의 집약형 시가지형성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3.1.2 土地利用의 基本方針

도시공간형성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한다.

1) 자연환경 존

귀중한 자연자원인 자연공원법, 宮城縣 자연환경보전조례 등의 대상지역, 수원보전 등에 특히 배려하는 지역인 수도수원유역과 하천원류지역 등을「자연환경 존」으로 한다.

이 존에서는 자연환경의 보호·보전과 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 집락 등의 생활환경의 향상, 자연과의 친화의 장 건설 등의 필요불가결한 시설정비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에 최대한 배려한다.

2) 전원・녹지 존

「자연환경 존」과「시가지 존」의 중간에 위치하고, 주로 농지, 주변 산 등 이차적인 자연이나 생산을 위한 녹지에 의해 형성된 지역을「전원・녹지 존」으로 한다.

이 존에서는 우수한 자연성을 가지고, 또는 방재나 경관형성상 귀중한 삼림, 하천, 호소, 습지 등은 일체적인 보전에 노력하고, 특히 奥羽山系에서시가지 주변의 녹지를 연결하는 서부 구릉에는 녹지의 연속성 확보에 충분히 배려한다. 또한 농지의 보전을 도모한다.

이 존에서 토지이용의 전환은 집락의 생활환경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변환경과 조화한 정비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시가지 존

도시적인 거주, 산업 등의 기능을 배치해야 하는 지역을「시가지 존」으로 한다.

이 존에는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도시기능의 적정한 배치와 유도를 도모함과 아울러 양호한 도시환경의 정비를 추진하고, 편리성과 쾌적성이 우수한 시가지를 형성한다.

공업・유통・연구개발지구에서는 적정한 입지유도나 고도화를 도모하고, 산업기능의 집적을 추진한다.

4) 괘도계 교통기관을 기축으로 하여 토지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는 지구

「시가지 존」중에서 괘도계 교통기관의 연변지구를 특히「괘도계 교통기관을 기축으로 하여 토지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는 지구」로 한다.

이 지구에서는 괘도계 교통기관을 기축으로 하여 토지의 고도이용, 고차원 도시기능의 집적이나 새로운 시가지형성의 유도를 도모한다.

5) 집락지구

「자연환경 존」과「전원・녹지 존」 내의 집락지구에 대해서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면서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한다.

3.1.3 都市機能의 提携

고차원 도시기능이 제휴하는 도시구조의 형성을 도모한다. 그리하여 도심의 강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남북과 동서의 도시축상에 각각의 기능특성이나 매력을 가진 거점 배치를 도모한다. 또한 도시 내는 통합하고, 광역적이고 국제적인 기능제휴의 관점에서 산업기능의 입지를 도모한다.

3.1.4 都市空間形成의 推進

도시계획 구역의 전체 시 지역의 확대나 토지이용을 적정하게 규제, 유도하는 새로운 틀 구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등에서 토지이용이나 시가지정비에 관한 방침과 지역마다 건설 방향을 명확히 한다.

또한「21세기 도시 센다이」의 도시공간형성은 시민・기업・행정의 공통이해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기초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바탕하여 그 실현을 도모한다.

3.2 創造와 交流를 위한 都市建設

21세기의 지식경제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도시의 활력을 창출하는 것은「지적창조활동」이다. 「지적창조활동」은 다채로운 인재와 지식 등의「교류」중에서 활발한 것이고, 그와 같은「장」은 도시에만 있다.

도시는 독창적, 혁신적인「지적창조활동」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에 통용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인재의「교류」에 의한 새로운 가치의「창조」의 장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도시에 달려있고, 이와 같은 장이 된 도시만이 21세기의 도시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센다이시에는「교육도시」로서의 지적자원의 집적이나 일본 동북의 중추도시로서의 고도한 교류기능의 집적, 그리고 시민의 다양하며 창조적인 활동의 폭이 있다. 이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창조에 도전하고, 국내외와의 다양한 교류에서 도시의 영속적인 활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다이는 선조나 많은 시민이 긴 역사에서 북돋아온 재산인「숲의 도시」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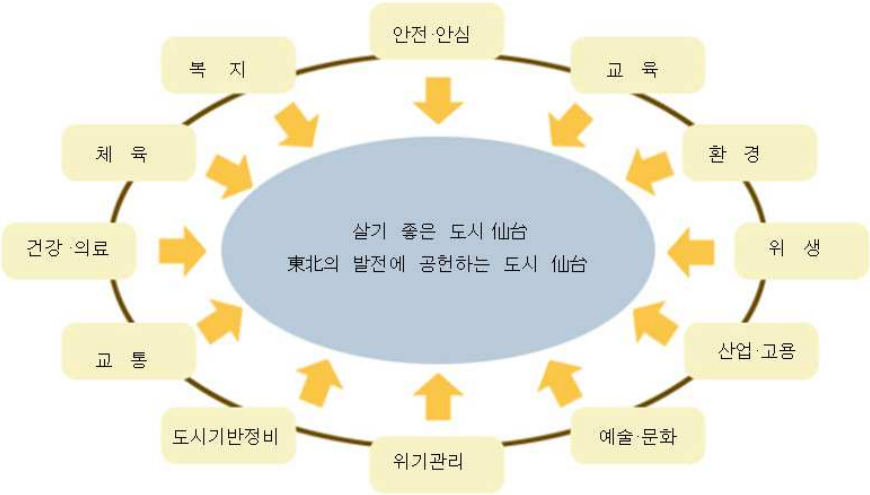


그림 25. 도시의 비전 책정

의 자연과 조화한 아름다운 도시자원이나 政宗公[17] 이래의 센다이 독자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유형무형의 자산이 있다. 이러한 센다이의 매력과 개성을 한층 높이고, 세계에 통용하여 시민이 자랑으로 하는 숲의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인구감소시대의 도래는 도시정책의 중점을 지금가지의 인구증가에 수반하여 양적 확대에의 대응에서 도시의 질을 높이는 틀로 전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지구적 교류시대」에서 진실로 세계에 통용하는 것은 그 지역에 고유의 역사나 문화이다. 시민이 향토에 애착과 자랑을 느끼고, 내외에서 많은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도 질이 높은 아름다운 거리, 역사나 전통을 느끼게 하는 경관 등 도시의 개성과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는 시민의 삶의 장이므로 시민생활의 기반으로서 첫째, 자연재해나 범죄, 건강피해 등에 대한「안전・안심」이 확보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성숙시대에서의 안전・안심의 기반 위에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시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창조하는 것은 과밀하며 비대화한 거대도시보다 양호한 환경을 가진 지방도시로서 큰 가능성이 있다.

---

17) 伊達 政宗 (1567년9월5일～1636년6월27일)은 戰國時代의 무장. 奥州 (後의 陸前國)의 戰國大名. 陸奥仙台藩의 初代藩主.

질이 높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도시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을 포함한 모든 생활자가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이고, 여기에 복지나 교육수준의 확보 등을 첨가하여 종합적인 도시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의 행복이나 정주인구의 증가 등 도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3.3 都市建設의 理念과 *4*가지의 基本方向

센다이의 도시비전은 관련하는 도시정책을 통합하여 시민, 사업자 등과 아울러「창조」와「교류」를 키워드로 한「창조」도시,「교류」도시,「창조」와「교류」의 장이 되는 도시기반형성,「숲의 도시」의 재구축 등 4가지의 기본 방향에 따라 세계에 통용되는 아름다운 품격, 활력이 넘친 도시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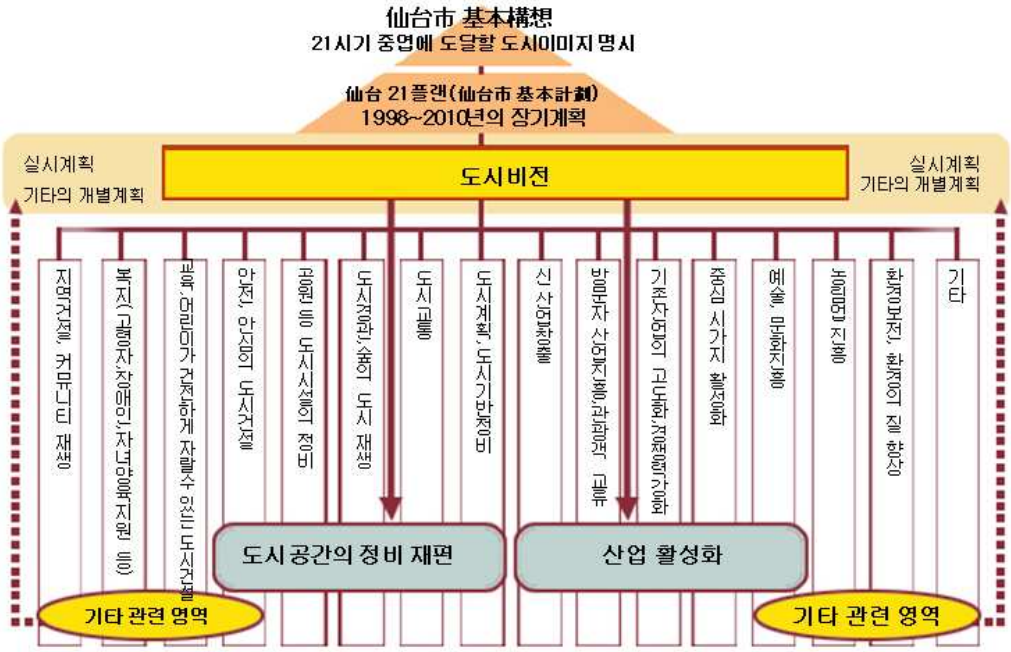


그림 26. 仙台 도시 비전

3.3.1 基本方向 *1*：「創造」都市

지식이나 가치가 정보를 창출하는「지식경제」에의 이행이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정부나 도시의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개인이나 기업의 창조적 아이디어나 지적 창조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센다이시에서도 도시로서의 경쟁력이나 활력을 창출하는 원천으로서의「지적창조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시민이나 기업 등의 창조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환경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센다이시는「교육도시」로서 인재를 포함한 지적자원의 집적, 광대한 캠퍼스 등의 귀중한 공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센다이시의 중요한 도시기능으로 받아들이고, 도시건설의 여러 가지 장면에서 활발함이 중요하다.

대학의 캠퍼스 이전[18]이나 지하철 동서선의 정비 등을 계기로 도시건설에서도 대학 등의 제휴를 강화하고, 대학 등의 지적창조활동이나 공간자원과「숲의 도시」의 풍부한 자연이나 다채로운 도시기능을 제휴시키고,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것에 의해 보다 활력과 매력이 넘친 새로운「교육도시」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

대학 등이 가진 지적자원의 집적을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짐과 아울러 지적자원의 집적을 유인으로 성외에서의 투자,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신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도모한다. 그리고 신산업과 기존산업을 연결하여 지역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예술・문화에 착목한 도시의 재생,「창조도시」의 틀이 추진되고 있다. 예술・문화라는 영역에서의 창조활동도 센다이시의 활력과 매력의 향상에 의해 불가결하고, 역사성이나 문화적 매력이 풍부한 도시환경은 시민이나 기업 등의 창조적 활동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센다이시는 센다이국제음악콩쿠르 등의 세계적 이벤트, 定禪寺스트리트재즈페스티벌에 대표되는 시민참여형의 이벤트, 센다이연극스튜디오10-BOX를 핵으로 한 연극활동 등「음악의 도시」,「연극의 도시」의 틀도 활발화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문화의 영역에서 틀이 더욱 활발화하는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도시의

---

18) 현재 동북대학의 青葉山 신캠퍼스정비계획과 아울러 雨宮캠퍼스, 片平캠퍼스의 일부가 青葉山 지구로 이전하는 계획 외에 동북학원대학의 土樋캠퍼스확장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적 매력을 한층 높임과 아울러 예술·문화의 창조성을 지역의 산업집적과 융합시키고, 창조적인 산업군을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의 센다이의 도시건설 방향성으로「교육도시」로서의 지적자원의 집적이나 시민 등에 의한 예술·문화활동 등 센다이시가 가진 창조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가치의「창조」에 도전을 계속하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정책의 방향 *1* :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교육도시」의 창조 교육도시로서의 강점,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건설 분야 등에 대학 등과의 제휴를 강화하면서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센다이의 매력과 개성, 활력을 창출하는 새로운「교육도시」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

【전략목표】

(a) 대학 등의 지적창조활동을 활발하게 한 도시의 활력창조

대학 등의 지적창조활동을 센다이시의 중요한 도시기능으로 채용하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인재의 육성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도시의 활력창조에 연결되는 틀 형성을 추진한다.

그림 27. 교육도시 仙台 콘소시움 설립총회

(b) 도시건설에서 대학 등과의 제휴강화에 의한 새로운「교육도시」의 창조

광대한 부지면적을 가진 대학의 캠퍼스 이전계획과 지하철 동서선의 개통은 센다이시의 도시구조[19]의 골격을 바꾸는 프로젝트이고, 세계에 향하여 도시의 개성을 내세울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면서 도시계획에서도 대학 등과의 제휴를 도모하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교육도시」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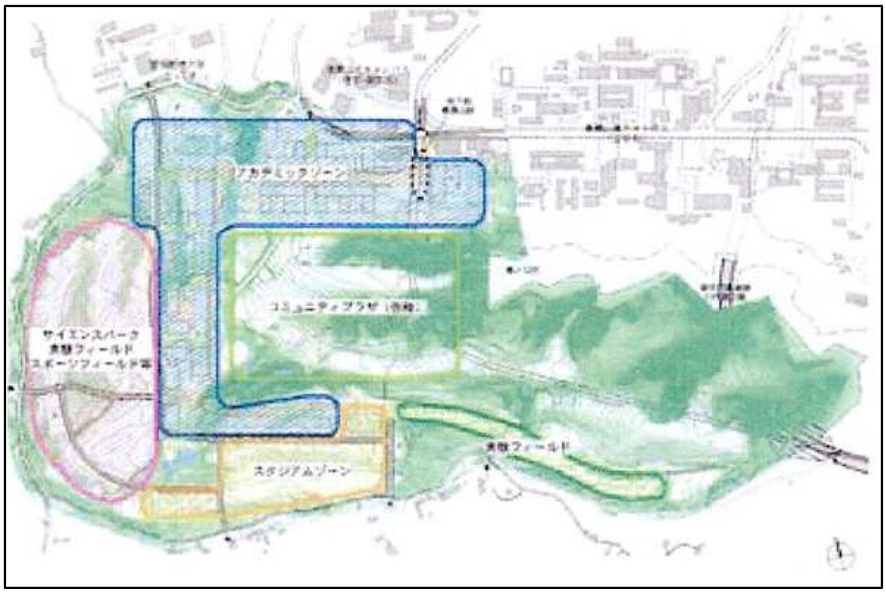


그림 28. 東北大學 靑葉山 캠퍼스 계획안

정책의 방향 *2* : 지역경제의 성장 엔진의 창조에 의한 자립적 산업기반의 확립 대학 등의 지적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는 신산업을 창출함과 아울러 이것과 연동한 지역산업의 경쟁력강화 등에 의해 자립적 산업기반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전략목표】

(a) 대학 등의 지적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클러스터[20]의 형성

센다이시 경제의 큰 강점인「교육도시」의 지적자원의 집적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19) 도시의 골격이 되는 교통망이나 도시로서 필요한 도시기능의 배치, 토지이용 등의 총체를 나타낸 것이다.

20) 클러스터(cluster)는 군집, 집단 등의 의미이다.「산업클러스터」의 경우 특정의 산업분야에 대하여 원재료・부품조달,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관련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개발기능, 금융을 비롯한 산업지원기능이 지리적으로 집중하고, 그들이 경합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총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정보산업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서 기술혁신과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의 창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신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그림 29. 仙台 핀란드 건강복지센터

(b) 특색이 있는 강력한 지역산업기반의 형성

지역의 중소기업 경영기반의 강화나 역외의 기업이나 신산업분야와의 제휴 등에 의한 기술혁신, 경영혁신, 새로운 사업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그림 30. 仙台市 정보・산업플라자

정책의 방향 *3*: 예술・문화의 창조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의 개성과 매력의 창출 센다이의 도시개성, 역사와 전통에 뒷받침된 예술이나 문화의 진흥에 의해 도시의 문화적인 매력의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예술이나 문화의 창조성을 활용한 창조적 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

【전략목표】

(a) 세계에 발신하는 도시문화의 육성, 도시의 문화적 매력의 향상

세계적인 콩쿠르나「음악의 도시」,「연극의 도시」의 틀,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이벤트 등의 충실을 도모함과 아울러 숲의 도시의 아름다운 도시공간형성 등도 연동시켜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도시문화의 육성, 도시의 문화적 매력 향상을 도모한다.

(b) 예술이나 문화의 창조성을 활발하게 한 센다이 독자의 창조적 산업의 진흥

디지털 콘텐츠[21], 영상, 프로덕트 디자인[22] 등의 창조적 산업을 육성・강화함과

21)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된 문장, 음악, 화상, 영상이나 그것을 조합한 정보를 가리킨다. 고속 대용량의 인터넷이 보급되는 중에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은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22) product design은 공업제품이나 가전제품, 건축설비 등의 형태나 의장, 설계이다. 소비자

그림 31. 仙台연극스튜디오 10-BOX

그림 32. 仙台디자인위크의 모양

아울러 그들의 제휴에 의해 높은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센다이 독자의 창조적 산업의 집적(creative cluster)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욕구의 고도화·다양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람과 물건(제품)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창조성이 넘친 제품개발로 이어지는 프로덕트 디자인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성장산업으로서도 기대되고 있다.

3.3.2 基本方向 *2*：「交流」都市

도시는 사람, 물건, 돈, 정보 등의 끊임없는「교류」의 장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새로운 지식, 가치가 창조되고, 지역산업이나 도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교류」는 도시활동의 혈류라고도 하는데, 교류나 집객 등이 어떻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는 도시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앞으로의 인구감소시대에서는 교류인구의 확대에 의해 역외수요를 불러들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관점이 점점 중요하게 되고 있다.

센다이시에는「숲의 도시」로서의 전통, 青葉山이나 廣瀨川 등의 풍부한 자연과 도시기능이 조화한 특색 있는 도시공간, 藩政시대부터의 역사와 전통으로 육성된 독자의 문화나 사계마다의 축제・이벤트, 전국 유수의 번창함을 보이는 중심상가, 대도시다운 도시형 서비스 산업의 집적 등 많은 교류자원이 있고,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발하게 하면서 교류인구의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동북의 제도시・지역과의 광역적인 제휴 강화에 의해 센다이시가 동북지방이 지닌 여러 가지 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핵이 되고, 동북 전체의 집객・교류를 증대시키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지하철 동서선이나 센다이공항 접근 철도 등의「교류」를 유지하는 기반조성이나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도시건설은 도시의「교류」기능 강화에 머물지 않고, 센다이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매력적인 생활환경조성으로도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정주인구의 증가에도 관련되고 있다.

가일층 진전을 보인 국제화에 입각하면 성장이 현저한 아시아를 비롯하여 해외의 제도시・지역과의 교류 강화가 점차 중요하게 되고 있다. 동경을 경유하지 않은 국제적인 도시간・지역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시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센다이・동북의 강점을 활발한 해외와의 상호보완적・협조적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국제적 도시간 교류를 추진한다.

동북지방의 중추도시인 센다이시는 세계에 열린 동북의 관문 도시로서 동북에서 해외와의 교류 결절점으로서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센다이의 도시건설 방향으로서 세계에 도시개성을 발신하고, 국내외와의 다양한「교류」에서 도시의 영속적인 활력을 창출하는 틀,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 *4* : 센다이 브랜드의 창조와 발신에 의한 집객・교류의 촉진 센다이의 도시개성과 매력의 창조와 전략적인 시티 세일즈의 전개에 의해 집객・교류인구의 확대나 다양한 인재나 기업 등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활력 향상을 도모한다.

【전략목표】

(a) 개성과 매력이 풍부한 센다이 브랜드의 창조와 발신

센다이의 역사나 전통에 뿌리박은 도시개성, 아름다운 자연이나 경관, 사계절 마다의 축제나 이벤트 등 센다이의 매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교류자원을 육성하고, 센다이 브랜드를 확립하여 세계로 발신한다.

그림 33. 定禪寺도로 재즈 패스티벌

(b) 폭넓은「교류」를 촉진하는 기반조성

「교류」를 관광에 머물지 않고, 비즈니스, 컨벤션, 학술・문화, 스포츠, 쇼핑, 식통(食通) 등 폭넓게 받아들이고, 해외를 포함하여 사람이 모이는 교류하기 편리한 도시구조나 방문객에게 양호한 도시설의 정비, 매력적인 도시공간의 형성을 추진함과 아울러 시민・사업자의 환대(hospitality),「접대력」을 강화하는 등 하드・소프트 양면에서「교류」를 촉진하는 기반조성을 추진한다.

그림 34. 仙台국제센터

c) 동북의 제도시와의 제휴에 의한 효과적인 프로모션 활동의 전개

동북의 제도시·지역이 지닌 풍부한 자연이나 문화, 관광자원, 산업집적 등 다양한 교류자원과의 제휴나 동북의 관문 도시로서의 기능강화 등에 의해 동북 전체의 집객·교류의 촉진을 도모한다.

(

그림 35. 광역관광제휴의 틀 예

정책의 방향 5 :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확립 동북 중에서 센다이,「교육도시」,「숲의 도시」로서의 도시개성, 도시 브랜드 힘을 높임과 아울러 아시아를 비롯하여 해외 제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화가 추진되어 세계에서 센다이시의 확고한 위치 확립을 도모한다.

【전략목표】

(a) 전략적인 국제화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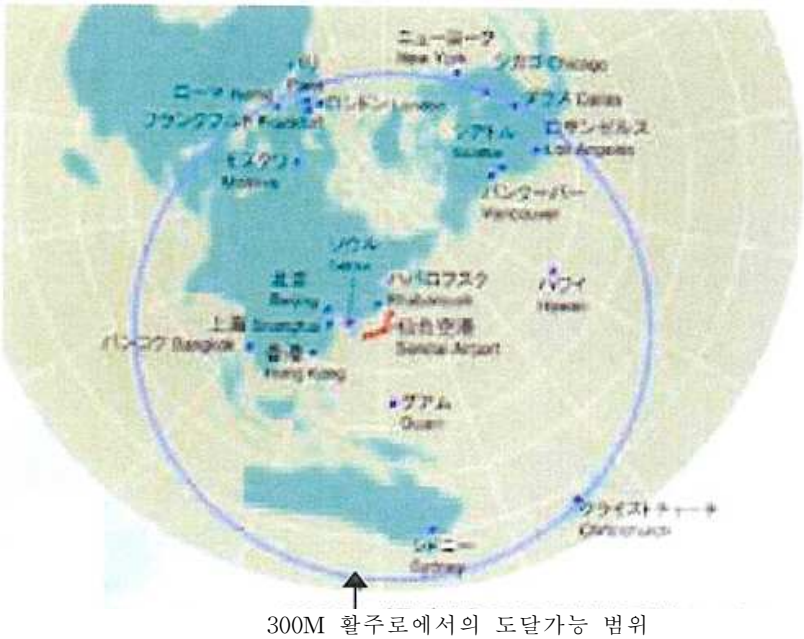
대학 등에서 지적창조활동, 숲의 도시의 양호한 도시환경, 예술·문화 등 센다이시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장이 현저한 아시아나 세계의 제도시·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아울러 이들 도시·지역과의 교류 성장을 도시의 활력이나 시민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전략적인 국제화를 추진한다.

그림 36. 산업·건강복지분야에서 핀란드와의 교류

(b) 세계에 열린 동북의 관문 도시로서의 기능강화

센다이공항, 센다이항의 이용촉진이나 기능강화, 컨벤션 기능의 충실, 종합적인 국제화 지원체제의 정비 등에 의해 세계와 동북을 연결하는 관문 도시로서의 기능강화를 도모한다.

그림 37. 仙台공항



300M 활주로에서의 도달가능 범위

그림 38. 仙台空港의 도달권

3.3.3 基本方向 *3*：「創造」와「交流」의 場이 되는 都市基盤造成

지금까지 도시는 급속한 인구증가나 경제성장 등을 배경으로 한 도시화에의 대응에 좇아왔다. 센다이시에서도 전재부흥기에서부터 고도성장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규모의 확대에 수반하여 시가지의 외연적 확대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도시구조를 지금부터 인구감소나 재정제약, 환경제약 등 시대환경에 대응하여 시민 누구나 생활하기 편리하고, 도시로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도시기반정비나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평가・검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히 기존계획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하여 진실로 도시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착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시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도시로서의 경쟁력과 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활력을 창출하는 원천인「창조」와「교류」를 유지하고, 그 무대가 되는 도시의 기반과 도시기능의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도서선의 정비나 대학 캠퍼스 이전계획 등 센다이시 도시구조의 골격을 크게 바꾸는 프로젝트가 태동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센다이시의 모습을 확인한 도시계획을 마련하여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호기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 동서선의 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기존의 궤도계 교통기관[23]이나 버스 등의 공공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건설과 일체가 되어 자동차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은 공공교통망의 정비를 추진한다.

공공교통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기능을 집약하여 분담하고, 다기능 도시구조로 전환하여 도시기능에의 접근성 향상과 도시기능의 고도화, 도시경영코스트・환경부하의 저감을 아울러 도모하여「기능집약형도시」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기능집약형도시는 집약화한 도시기능 상호의 상승효과에 의해 동북의 중추도시로서의 도시기능이 한층 고도화가 도모됨과 아울러 고령자를 비롯하여 시민 누구라도 여러 가지 도시기능에 접근하기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동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도시로서 국제적인 도시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

---

23) 철도, 궤도부 등 전용의 공간 내를 주행하는 교통기관의 총칭. JR선, 지하철을 비롯하여 모노레일, LRT, 가이드웨이버스 등을 들 수 있다.

심부의 도시기능과 매력을 한층 높이는 외에 광역교통 네트워크 강화 등 광역거점기능의 충실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하철 동서선의 연변가 건설의 전개 등에 의해 동서도시축의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거점에서는 도보 생활권을 형성하는 등 중층적 도시구조의 형성을 추진한다.

이들은 도시계획, 교통, 산업, 관광, 예술·문화 등 관련 정책영역이 일체가 된 전략적인 틀로서 행함과 아울러 센다이시뿐만 아니라 동북 전체의 활성화에 연결되는 관점에서 추진한다.

앞으로의 도시건설의 방향성으로서,「세계 중의 동북, 그 중추도시로서의 센다이」,「동북 각 지역의 네트워크 핵으로서의 센다이」,「센다이 도시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권으로서의 센다이」라는 다각적인 관점에서「창조」와「교류」를 창출하는 도시의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 *6* : 기능집약형 도시구조로의 전환

세계적인 도시간 경쟁의 격화, 인구감소, 재정제약, 환경제약 등의 조류를 확인하고, 공공교통축에 다양한 도시기능을 집약하고, 분담하여 컴팩트한 도시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도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전략목표】

(a) 공공교통축을 중심으로 한 기능집약형 도시의 형성

기존의 도시자원을 활용하면서 철도 등의 공공교통축에 도시기능을 집약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공공교통을 주된 이동수단으로서 기능의 제휴를 도모하는「공공교통을 중심으로 한 기능집약형 도시」로의 전환을 실현한다.

(b) 도시기능의 적정한 입지유도

도시기능의 집약에 있어 국제사회나 광역 블록권을 염두에 둔 고차원도시기능[24]의 집적을 도모하는 중추거점, 광역적인 생활의 거점이 되는 광역거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지역거점 등 각 거점에 필요한 기능을 유도하고, 중층적인 도시구조를 형성한다.

24) 도시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고부가가치상업기능, 중추관리기능, 연구개발기능, 인재육성기능, 국제교류거점기능, 문화예술·오락기능 등 그 도시뿐만 아니라 보다 광역적인 지역에 대해서도 효과를 파급하는 기능. 센다이시는 동북의 중추도시로서 동북 전체의 자립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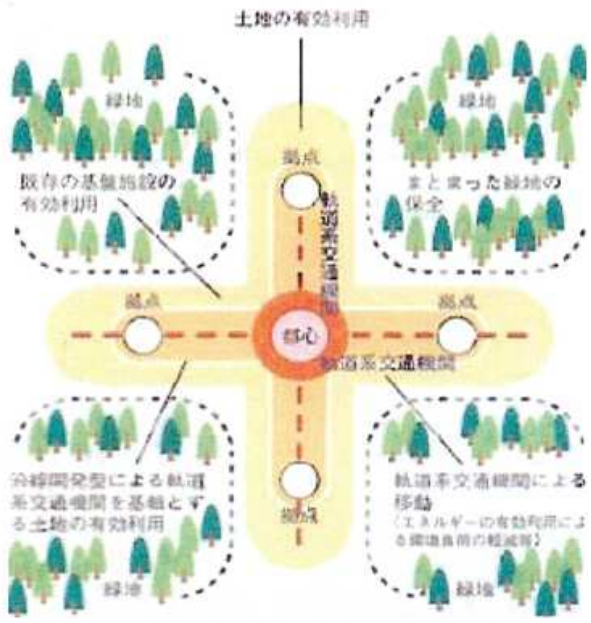


그림 39. 괘도계 교통축을 기축으로 한 집약형시가지

정책의 방향 7 :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의 구축 기능집약형 도시의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편리하며 이용하기 용이한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의 구축에 의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의 실현을 도모함과 아울러 숲의 도시의 상징적 공간인 도심부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형성하고, 걸어서 즐거운 시내 공간을 창출한다.

【전략목표】

(a) 공공교통전략의 추진

도시기능의 적정한 입지유도를 도모하는 토지이용정책과 제휴한 공공교통전략을 추진하고, 자동차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은 편리성이 높은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b) 도심교통정책의 추진

숲의 도시의 얼굴이고,「창조」와「교류」의 기점이 되는 도심부의 교통환경 향상을 도모하고, 매력과 활력이 넘친 숲의 도시에 어울린 시내 공간을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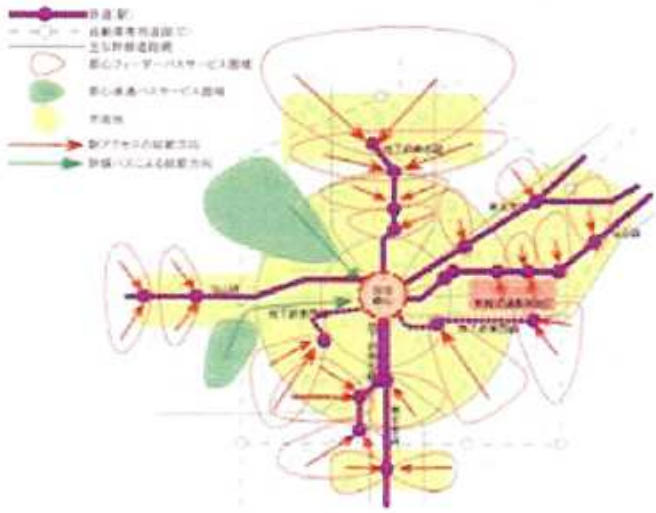


그림 40. 장래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의 방향 *8* : 세계와 교류하고, 동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기능의 고도화 도시활력의 원천인 지적창조활동이나 국내외와의 교류를 창출하고, 세계와의 교류나 동북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도시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전략목표】

(a) 도심의 재생과 기능강화

숲의 도시 얼굴인 도심에서 동북에서의 중추성과 도심의 매력, 번창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 도시공간형성, 산업, 예술・문화, 국제화 등의 각종 정책이 일체가 되고, 중추적・광역적 도시기능의 집적과 고도화를 도모한다.

(b) 광역거점・동서도시축의 강화

長町이나 센다이항 배후지 등의 광역거점 도시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지하철 동서선에서「창조」와「교류」를 창출하는 다양한 도시기능의 집약을 도모하고, 센다이시 미래를 여는「동서도시축」을 강화하고 있다.

(c) 광역교통 네트워크의 강화

동북의 중추도시로서 동북의 발전에 공헌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도시간 경쟁에 대응

그림 41. 공공교통시설의 배리어프리화

그림 42. 루브르 仙台

하기 위하여 센다이국제무역항이나 센다이공항으로의 교통접근을 확보하는 외에 고속도로나 신간선 등의 광역교통 네트워크의 강화 등 동북에서 광역거점기능의 충실을 도모한다.

그림 43. 仙台공항 접근철도
(仙台공항역)

그림 44. 仙台국제무역항

그림 45. 자동차전용도로 등 계획도

3.3.4 基本方向 *4*：「숲의 都市」의 再構築

도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생활의 장이다. 도시의 양적 확대에서 탈피하고,「질」을 중요시한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짐과 아울러 도시의 미래를 여는「창조」와「교류」를 촉구하게 된다.

도시의「질」이란 시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안전·안심이나 역사나 전통이 느껴지는 거리의 아름다움, 품격, 윤택, 안정, 번창, 도시생활의 즐거움(예술·문화, 스포츠 등) 등 도시의 공간이나 도시 환경의 총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육이나 복지, 자녀양육 지원, 의료 등의 서비스 수준도 시민생활의「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숲의 도시」전통에 입각하면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개성, 녹지가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자랑, 만족도의 향상으로 이어짐과 아울러 매력적인 도시의 브랜드가 되고, 지적창조활동을 담당하는 인재나 기업이 방문하고, 다양한 교류를 창출하는 매력도 된다.

「숲의 도시」는 센다이시 최대의 브랜드이고, 여기에 더욱 빛이 나게 하고, 센다이

시의 도시개성으로서 세계에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녹지를 증가할 뿐 아니라 공공교통체계의 정비에 의한 과도한 자동차교통이용에서의 탈피나 도로공간의 재편 등도 연동시켜 많은 시민, 기업 등의 참여와 제휴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보다 질이 높은 틀이 된다.

또한 센다이시의 역사와 전통에 뒷받침된 아름다움과 품격을 느끼는 거리나 경관의 형성을 도시계획이나 경관정책, 관광, 상가활성화, 방범, 예술・문화 등의 영역이 일체가 되어 추진되고, 방문객, 시민의 누구나「걷기에 즐거운 거리」,「센다이의 개성이 느껴지는 거리」를 실감할 수 있는 도시건설을 추진한다.

이러한 도시의 매력 기반이 되는 것이「안전・안심」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나 감염증, 음식의 안전 등 건강피해, 증가하는 범죄나 미혹행위 등 시민생활을 둘러싼 불안을 어떻게 적게 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건설을 추진하는가가 지금부터의 도시건설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생활하여 자기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의 도시건설이나 도시의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앞으로의 도시건설의 방향성으로서 이러한 도시공간, 도시환경의「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높이고,「창조」와「교류」가 창출되는 기반조성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 *9* : 질이 높고 녹지가 풍부하며 아름다운 도시공간의 형성

역사와 전통,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직주유학」의 기능이 갖추어지고, 즐겁고, 번창하고, 윤택하고, 아름다움과 품격이 있는 녹지가 풍부한 도시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전략목표】

(a)「숲의 도시」의 재생

센다이 최대의 브랜드인「숲의 도시」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도로공간의 재구성, 공원재정비, 시민참여에 의한 사유지녹화, 시가지와 농지, 자연의 균형을 고려한 시가지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숲의 도시 재생을 도모한다.

(b) 아름다움과 품격이 있는 경관・거리의 형성

센다이의 역사와 전통이 뒷받침된 아름다움과 품격을 느끼는 경관형성, 거리의 형성이나 역사성을 활용한 도시건설을, 도시계획이나 경관형성, 중심시가지활성화, 예술·문화정책,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영역이 일체가 되어 추진한다.

(c) 시민, 사업자, 행정이 도심지의 장래이미지를 공유하여 일체가 된 도시건설 추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도시 아이덴티티의 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심지에서 관계자가 도시건설의 장래 이미지를 공유하고, 일체가 된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틀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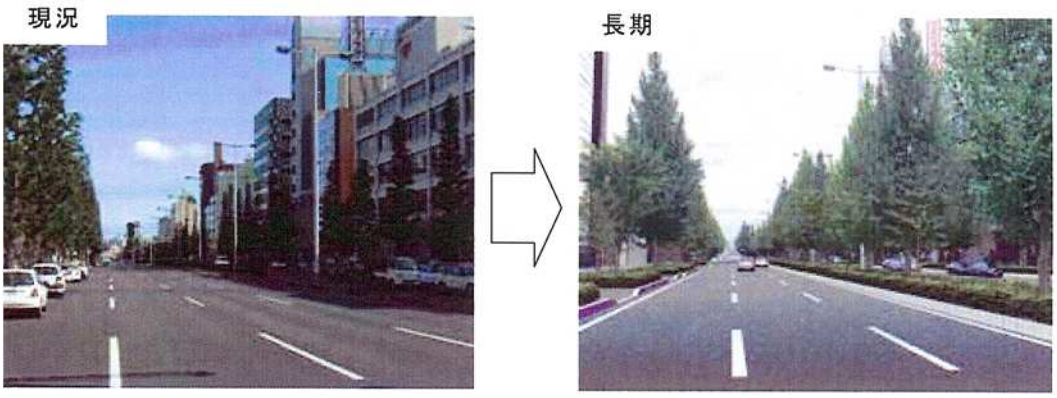


그림 46. 도로공간 재구성에 의한 녹지의 창출 이미지

(출처 : 綠美しい社の都推進協議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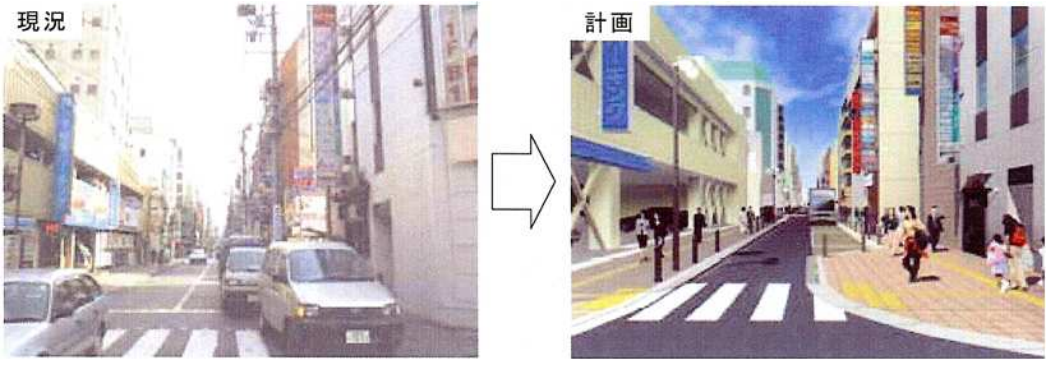


그림 47. 도심지역에서 전선지중화사업의 틀

정책의 방향 *10* : 안전・안심한 도시의 실현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 활력과 매력이 넘친 도시의 기반이 되는「안전・안심」을, 도시의 하드・소프트 양면에서 받아들이고, 누구나가 쾌적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의 실현을 도모한다.

【전략목표】

(a) 도시생활에서「안전・안심」의 확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방재기반의 정비, 감염증, 음식의 안전 등 시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는 틀이나 도시 전체의 범죄억지력의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도시 전체적으로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고, 모든 측면에서 시민생활의「안전・안심」의 확보를 도모한다.

그림 48. 지역의 방범조직
(仙台中央國分町地區防犯指導隊)

(b) 모든 사람이 쾌적하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의 도시건설

소자녀 고령화의 진전을 확인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자기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의 도시건설을, 하드・소프트 양면에서 충실하도록 함과 아울러 도시의 미래를 담당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추진하는 등 모든 사람이 쾌적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추진한다.

그림 49.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건물

Ⅳ. 都市비전 實現을 위한 틀

4.1 都市政策의 綜合的 展開

지구규모에서의 지역간의 경쟁과 제휴의 시대, 또한 이윽고 다가올 인구감소시대에서 지역에는 자립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21세기의 국토를 선도할 지역으로서 기대되는 동북에서 센다이에는 중앙과 동북지방을 중계하는 역할을 넘어 동북 각 지역의 다양한 제휴를 유지하고, 산업의 진흥이나 지역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중앙과 지방의 틀이나 국경을 넘은 지역간의 교류와 제휴를 유지하는 광역적인 관점에서의 기반정비가 필요하다. 센다이에는 새로운 중추기능으로서 세계와 동북을 연결하는 국제교류기반의 정비나 국제경제교류기능의 집적이 요구된다.

생활이나 문화에 관련되는 고차원 욕구의 증대에 대하여 광역적인 교류와 제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성숙시대 동북의 과제이다. 센다이는 그 핵으로서 상업이나 오락기능의 집적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광, 컨벤션 등 광역적인 교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람・사물・정보가 국경을 넘어 왕래하고, 생활이나 경제활동이 상호 관련하는 지구적 교류는 더욱 확대된다. 그것은 도시의 기능이나 시스템과 개성이 도시 내외에서 세계적 관점에서 평가되는 시대이다. 국적의 다양화 등이 진전하는 중에 각각의 문화나 의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도시풍토는 21세기형의 도시 조건이 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기술 등 정보의 세계로 향한 발신, 직접 세계와 연결된 경제교류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국제교류활동이 전개되는 해외에 열려진 사회를 형성하고, 지구의 새로운 활성화와 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소자녀화, 이윽고 다가올 인구감소 등에 의한 광역적인 규모에서의 시장구조의 변화, 국제화나 정보화에 의한 경쟁조건의 변화 등 센다이의 산업을 둘러싼 환경에는 앞으로 더욱 큰 변동이 예상된다. 한편 그 가운데 새로운 수용가 나타나고, 새로운 산업활동의 가능성도 확대된다. 이에 대응하여 취업이나 소득의 기회와 풍요로운 삶을 요구하는 시민욕구를 만족하고, 도시권과 동북의 발전을 유지하는 활력 있는 산업구조의 형성을 위한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틀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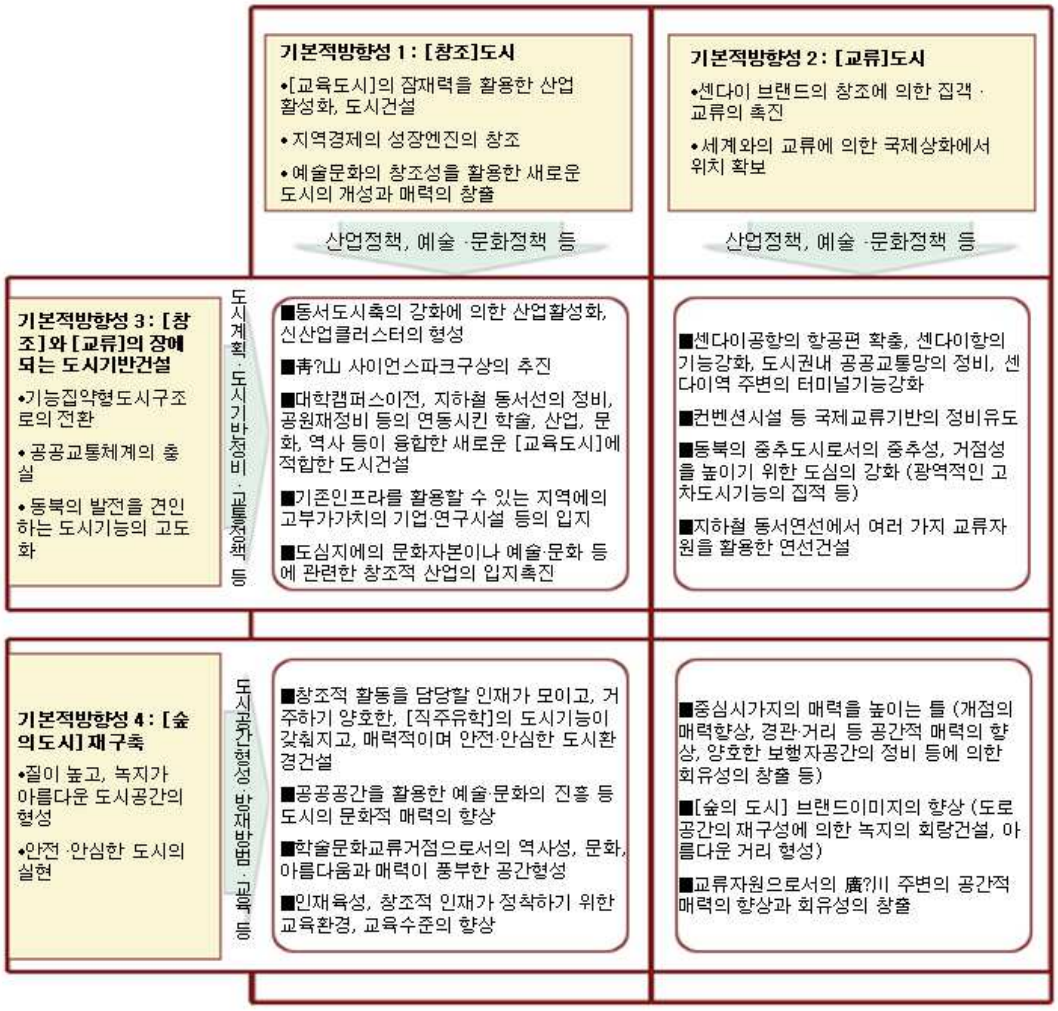


그림 50. 시책전개의 이미지 (4가지의 기본 방향 상호의 관련성)

주민의 삶과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고, 광역적인 집객에 의해 센다이시 경제를 유지하는 상업기능의 역할은 앞으로도 크다. 나아가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중요시된다. 유통구조나 구매행동의 변화에 수반하여 상업입지의 동향도 변화하고, 고령화의 진전, 환경,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도시건설과 일체적으로 상업기능의 집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센다이시 경제에 새로운 성장력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정보・통심산업을 비롯하여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는 광역규모에서 선도적인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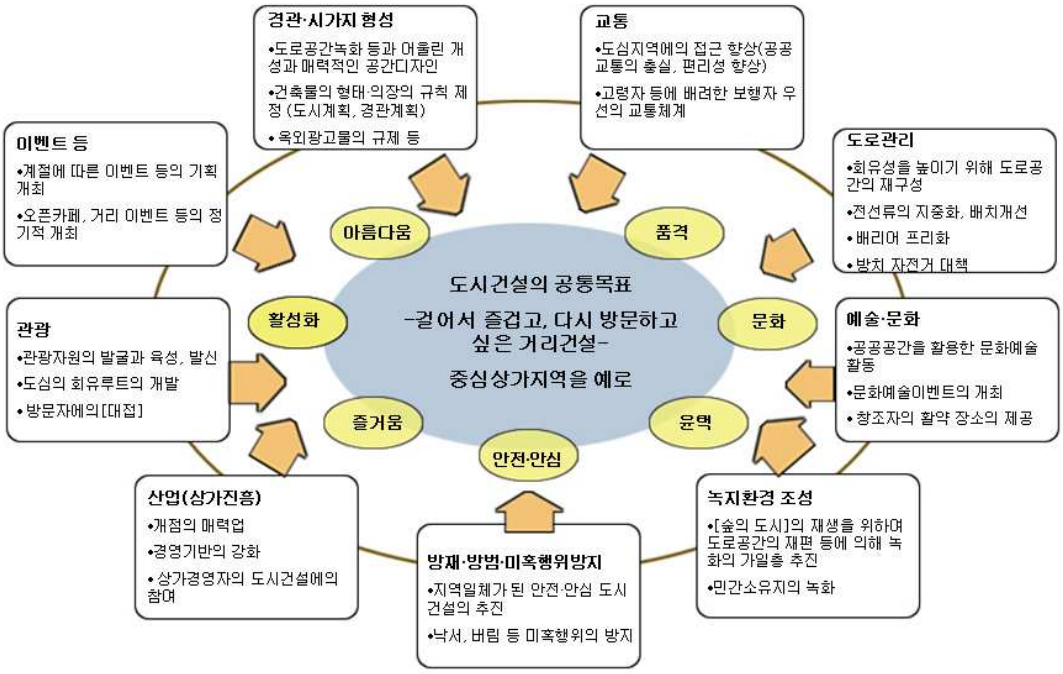


그림 51. 도시정책의 종합적 전개의 이미지

업에 첨가하여 정보화, 고령화, 환경보전, 여가 등 성숙사회의 욕구를 수용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산업 형성에 다양한 촉진이 요구된다.

소비수요의 다양화나 정보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도시내 공업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생활문화관련, 정보관련 등 도시내 수요에 영향을 받는 제조업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국제분업이나 수요의 성숙화가 진행되는 중에 연구개발기능의 집적을 활용하고, 고도한 개발력을 가진 제조업의 진흥이 요구된다.

도시비전에 바탕하여 각종의 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칫하면 수직적 관계의 정책 영역마다 이루어졌던 개별 틀을 공통의 목표에서 산업진흥, 예술·문화, 도시계획, 도시공간형성 등의 도시정책을 융합하여 일체가 되어 전개할 필요가 있다.

4.2 都市經營 觀點에서의 틀

지방분권의 시대에서 정책주체로서 도시위치부여가 점점 중요시되고, 재정제약이 강

해지는 가운데 공공투자의 엄선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기반 정비 등의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정비된 각종 인프라의 유지・갱신 등의 코스트의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투자를 확인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기존 스톡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는 관점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재정제약에서 지금가지의「공공＝행정」관점에서 탈피하여 행재정개혁 등의 틀을 한층 강화함과 아울러 PFI[25], PPP[26]로 불리는 사업기법 등도 포함한 관민의 파트너십에 의한 틀, 민간활력의 활용 등의 틀을 한층 확대할 필요가 있다.

4.3 다양한 主體의 提携에 의한 都市建設

도시비전에 바탕하여 틀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력과 매력, 품격이 넘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 대학, 기업, NPO 등의 다양한 주체가 도시건설에 참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센다이시에는 廣瀨川의 청류를 유지하는 조례나 탈스파이크 타이어(Spike tire)운동, 定禪寺 도로를 무대로 한 여러 가지 이벤트 등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건설을 실천한 실적이 있다.

도시비전은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주체가 공유할 수 있는 도시건설의 공통목표, 틀의 지침으로서 제시하는 것이고, 앞으로 개별 정책에서 각각의 역할분담 등도 명확히 하면서 주체간의 제휴협력에 의해 비전실현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

25)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는 지금가지 공적 부문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자본의 정비・운영 등을 민간의 경영 노하우나 자금, 기술력을 활용하여 행하는 새로운 사회자본정비의 기법이다. 센다이시에서도 신천문대정비・운영사업 등에 도입되고 있다.

26)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관민의 협력과 제휴)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서 어떤 형태로 민간이 참여하는 기법을 폭넓게 받아들인 개념으로 PFI기법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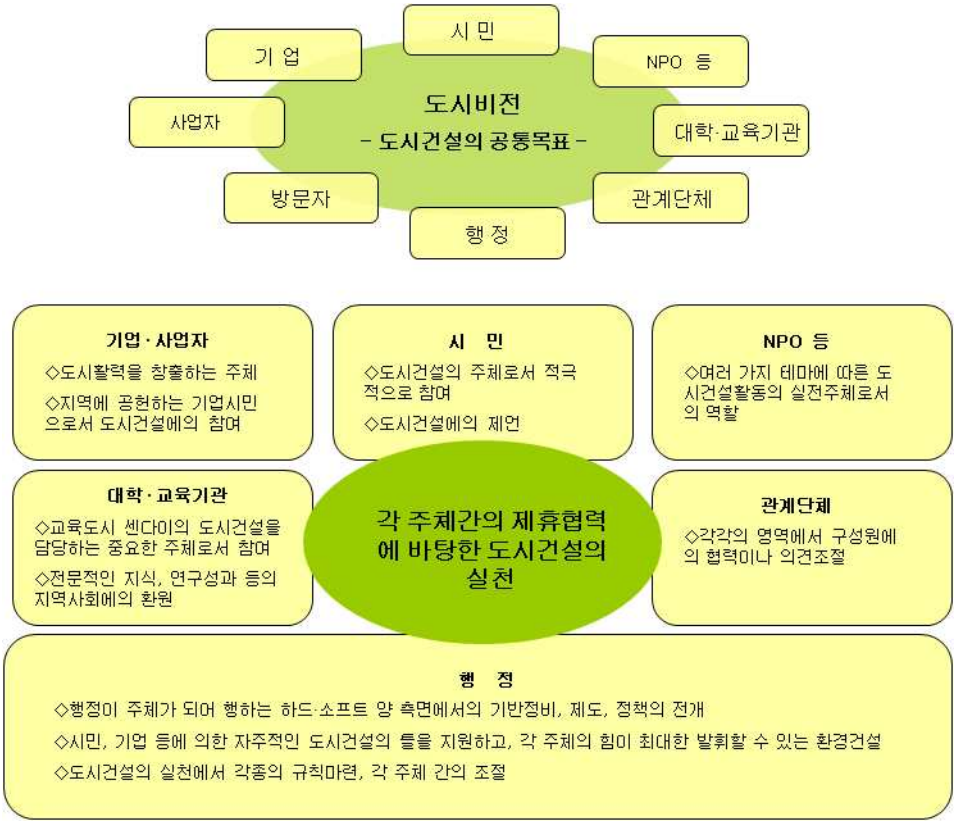


그림 52. 다양한 주무처의 제휴에 의한 도시건설의 이미지

4.4 人材育成

도시건설의 담당자는 시민, 기업,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관련되어 있지만, 기본은 「사람」이다. 고령화, 소자녀화가 점점 진전되는 가운데 센다이를 보다 거주하기 편리하고, 자랑스런 도시로 만든다는 정열을 가지고, 여러 영역에서 도시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담당자, 인재의 육성이 도시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도시건설의 담당자, 인재육성 관점을 학교교육의 장면에서도 중요시하면서 애향심, 향토의 역사나 문화를 중요시하는 마음을 기르는 틀도 중요하다.

4.5 都市비전에 바탕한 틀의 進行管理

도시비전에 바탕하여 각종의 틀은 개별 정책영역마다 각각의 계획 등에서 더욱 상세한 액션플랜이 검토되지만, 도시비전실현을 위한 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에서 개개의 틀마다 연차계획이나 목표설정을 명확히하여 진행관리를 행하고 있다.

4.6 主體的·創造的 都市經營의 推進

지역사회의 과제를 지자체 스스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항상 시민욕구나 시대의 요청을 먼저 파악하는 조사기능, 독창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기능, 뒤섞인 과제에 정확히 대응하는 조절기능 등의 강화를 도모한다.

대도시 특유의 과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하여 도시의 활력 향성에 의한 세원의 함양을 비롯하여 자주 재원의 확보에 노력함과 아울러 정부나 현에서 시에의 대폭적인 업무권한의 위임, 규제완화와 대도시 세재정제도의 확충을 도모한다.

계획의 목표를 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으로서 실시계획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본계획의 진척상황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도모한다.

새로운 정책과제나 중점정책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동적인 조직을 구성함과 아울러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유연한 조직구성을 추진한다.

지구적 교류의 시대에 센다이나 동북이 담당하는 장래적 기능에 대하여 현이나 도시권을 비롯한 동북 각 지역의 관계 지자체와 공통인식을 형성하면서 협력하여 그 실현에 노력한다.

4.7 市民과 行政의 協力에 의한 都市建設의 推進

시민과 행정의 쌍방향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홍보기능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시민과 행정의 커뮤니케이션을 깊이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을 적절하게 파악

하고, 시정에 유효하게 반영시키는 틀을 확립한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복지의 충실, 생활환경의 정비 등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개성 있는 도시건설에 대하여 상담, 정보의 제공 등 지원의 충실을 도모한다.

시민이 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참여의 제공 등에 의해 시민의식의 고양을 도모한다.

4.8 效率的인 行財政運營의 推進

행정수요의 정확한 파악이나 사업의 추진방법의 부단의 개선을 통하여 조직의 산소효율화, 지원정수, 급여, 외곽단체 등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등 행재정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노력한다.

시민·기업·행정의 적절한 공급주체의 구성에 의해 시민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공급형태에 의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자본의 정비나 관리운영의 주체와 방침에 대하여 민간의 자본이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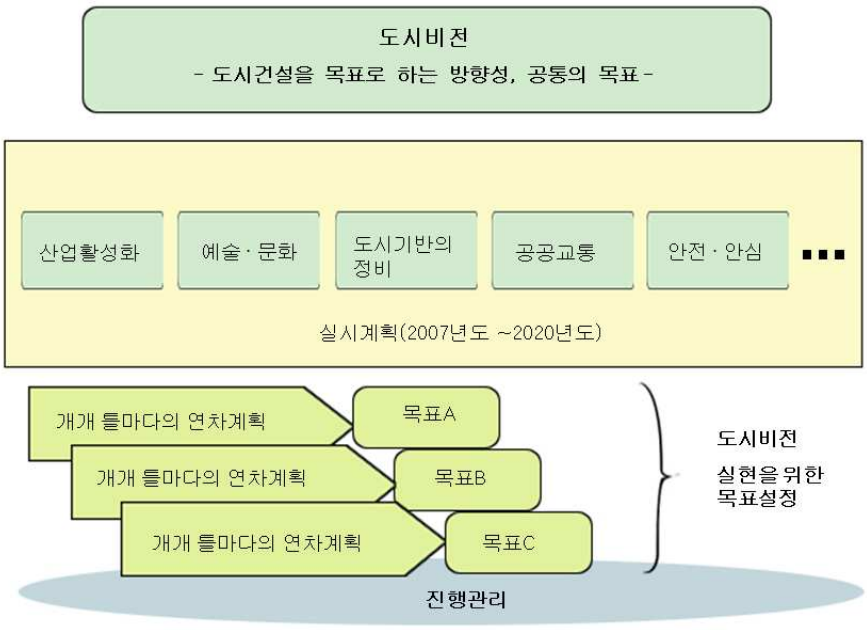


그림 53. 도시비전에 바탕한 틀의 진행관리 이미지

Ⅴ. 結 論

경제의 저성장에 첨가하여 인구감소, 급속한 소자녀 고령화 등 일본 사회경제의 성숙화가 진행하고, 한편 아시아 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국경을 넘은 도시간 경쟁의 격화 등 도시를 둘러싼 환경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의 진전이 예상되고 있는 한편 세출·세입 일체개혁 등에 의해 도시의 재정적 제약은 한층 엄격해지는 것으로 상정되고, 각 도시는 스스로의 창의와 노력에 의해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 있다.

이에 첨가하여 센다이시에서는 지하철 동서선의 착공이라는 센다이시의 도시골격을 바꾸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이 시기에 전략적인 도시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활력과 개성, 매력적인 도시로서 지속적 발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센다이의 도시비전은 관련하는 도시정책을 통합하여 시민, 사업자 등과 아울러「창조」와「교류」를 키워드로 한「창조」도시,「교류」도시,「창조」와「교류」의 장이 되는 도시기반형성,「숲의 도시」의 재구축 등 4가지의 기본 방향에 따라 세계에 통용되는 아름다운 품격, 활력이 넘친 도시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센다이의 도시건설 방향성으로「교육도시」로서의 지적자원의 집적이나 시민 등에 의한 예술·문화활동 등 센다이시가 가진 창조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가치의「창조」에 도전을 계속하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또한 세계에 도시개성을 발신하고, 국내외와의 다양한「교류」에서 도시의 영속적인 활력을 창출하는 틀,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중의 동북, 그 중추도시로서의 센다이」,「동북 각 지역의 네트워크 핵으로서의 센다이」,「센다이 도시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권으로서의 센다이」라는 다각적인 관점에서「창조」와「교류」를 창출하는 도시의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센다이21플랜이 목표로 하는 도시이미지의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속될 수 있는 틀, 강화할 수 있는 틀을 기둥으로 한 전략비전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의 창의를 활용한 새로운 틀을 구축하면서 시민과 행정이 제휴한 도시건설을 추진한다. 도시건설의 주체로 시민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행하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넓힌다.

參考文獻

1. 이연숙외(2008), 창조도시 볼로냐의 쇠퇴공장지역 재생 현지사례연구, 생태환경건축, 제8권 제3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6.
2. 이영문・박영신・임만택,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조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27권 제1호, 2007.10.
3. 이영문・임만택, 창조도시 일본의 센다이 비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28권 제1호, 2008.10.
4. Allen J. Scott(2000), Cultural Economy of Cities, Sage Pubns.
5. Charles Landry(2000), The Creative City :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Stylus Pub Lic.
6. Charles Landry & F. Bianchini(1995), The Creative City, Comedia.
7. David Throsby(2001),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Univ Pr.
8. Greg Baeker(2008), Creative City Planning Framework, Pauline Couture.
9. Masayuki Sasali, KANAZAWA, A Creative and Sustainable City, Policy Science Vol.10. No.2 Ritsumeikan University.
10. Richard Florida(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Perseus Books Group.
11. Richard Florida(2005), City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12. Sir Peter Hall(1999), Cities in Civilaization, Trafalgar Square.
13. Jane Jacobs(1984), 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 : Principles of Economic Life, Random House, 中村達也・谷口文子譯(1994), 都市の經濟學－發展と衰退のダイナミクス, TBSブリタニカ.
14. DCMS(1998, 2001), Creative Industries : Mapping Documents.
15. 佐々木雅幸(2001), 創造都市への挑戰, 岩波書店.
16. 佐々木雅幸(1997), 創造都市の經濟學, 勁草書房.
17. 佐々木雅幸編著(2006), CAFE : 創造都市・大阪への序曲, 法律文化社.
18. 佐々木雅幸＋總合研究開發機構(2007), 創造都市への展望, 學藝出版社.
19. 太下義之(2008), 創造都市バルセロナの文化政策, 季刊 政策・經營研究, Vol.1.
20. 電通總研レポート 2002年度-2(2001), “强氣”の米國にも競爭志向に翳り“弱氣”の日本にも若年層に意識變革の胎動, 株式會社 電通電通總研.

21. 野中都次郎, 竹内弘高(1996), 知識創造企業, 東洋經濟新聞社.
22. 仙台市(2007), 創造と交流 仙台市 都市ビジョン, 2007年 1月.

감사의 말씀

뒤 늦게 시작한 만학의 길이 조금은 힘들었고 부족한 연구의 결실이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결실이기에 그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이 학위논문의 완성은 저의 노력 보다는 주위 분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컸기에 가능 했습니다

먼저 본 연구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세심한 배려와 자상함으로 지도해 주신 임만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던 김수인 교수님과 박강철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조용준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청웅 교수님, 양영성 교수님, 김의식 교수님, 김정섭 교수님, 장동국 교수님, 김인호 교수님, 최재혁 교수님, 염대봉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생활동안 함께 하며 바쁜 시간에도 논문을 마무리하는데 관심과 도움을 준 대학원 학우 여러분과 박사과정 모신희와 성대철, 석사과정 김현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더존 건축사사무소 정집문건축사님과 이영 건축사사무소 이영진 실장과 이상갑 과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어머님과 장모님을 비롯한 형제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힘들어 할 때마다 많은 용기를 주신 금당선원 진표스님과 금당선원 가족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과 격려로 함께해준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인생의 길벗이자 반려자인 박윤경과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인 사랑스런 아들과 딸 (경태, 민지, 경현)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실 아버님께 이 학위논문을 바칩니다.

2008년 12월

이 영문